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 하겠습니다

기독일보 창간 12주년 기념·영자신문 봉헌예배 드려

한인 1세·1.5세·2세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한 아름다운 동행 약속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기독일보.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하라(마5:37)”를 사훈으로 삼고 미주교계 정론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가고 있는 기독일보가 창간 12주년을 맞이해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렸다.

22일 오전 LA한인타운 JJ그랜드 호텔에서 드려진 이 예배는 다음세대 준비를 위해 2년 전에 창간한 영자신문 봉헌예배도 함께 올려졌다. 이날 1.5세인 김성민 목사(남가주 세소망교회 담임)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1세인 강순영 목사(JAMA 대표) 대표기도, 감지원 목사(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 회장) 성경봉독,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남가주교협 중경회장) 설교, 민승기 목사(OC 교협 회장) 축사, 송정명 목사(월드미션대 총장) 격려사, 박희민 목사(새



남가주 교계 관련 한인 1세, 1.5세, 2세들이 기독일보 창간 12주년 기념·영자신문 봉헌예배에 참석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생명선교회 대표) 축도가 있었다. 1.5세로는 문일명 목사(한우리교회) 축사, 박성호 목사(인랜드은누리교회)가 격려사를 전했다. 2세로는 마이클 리 목사(영락셀라브레이선교회)가 축사, 벤 신 교수(탈봇신학교)가 격려사를 전했다. 이영수 장로(남가주장로성가단 부단장)와 김정선 집사는 찬양으로 함께 했다. 이 외에도 각 세대를 대표하는 교계 지도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본사

의 비전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약속했다. 이날 진유철 목사는 '정체성이 확실하면 보상이 따릅니다(요1:6-8)' 주제의 설교를 통해 "기독일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히 인식하며 교계의 연합을 꾀하고 이 지역 복음화의 등불이 되는 정론지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벤 신 교수와 마이클 리 목사는 "지난 2년간 영자신문이 매우 성실

하게 사명을 감당해주었다"고 말하며 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본사 이인규 사장은 참석자들에게 사랑과 기도, 후원을 부탁하며 "교단과 교파의 장벽, 문화와 세대의 장벽을 넘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기독일보를 통해 한인교회들이 연합하고 부흥하게 하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했다. 김준형·이영인 기자



- 1. 자기 통제력**
인생의 힘든 시기에 자포자기하거나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 2. 우선순위**
인생의 정확한 우선순위를 알기에 삶의 지혜와 분별력을 갖고 있다.
- 3.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 4. 꿈이 있는 사람**
인생과 사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많기에 새벽을 깨워 기도할 제목도 많다.
- 5. 무서운 잠재력**
영적으로 강력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세상도 지배하게 되었다.
- 6. 부지런한 사람**
자신의 삶에 성실하고 신실하며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
- 7. 낭만적인 사람**
인생의 힘겨운 위기마저도 가슴 뭉클한 기적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을 가진다.

북핵 폐기 기도회

보수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 24일, 한파 속 서울광장서 개최

보수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국가 안보와 북핵 폐기'를 위한 국민기도회 및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24일 오후 3시 서울광장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올 겨울 최악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석해 뜨겁게 기도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북핵이라는 비대칭 전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도 핵을



서울광장을 가득 메운 기독교인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가져야 한다는 구호도 나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교회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한 손에 쥐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해왔다"며 "오늘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도회를 연 이유도 북한 핵실험으로 국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중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반(反)북핵연대를 형성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할 것, 북한에게는 핵을 폐기하고 개방사회의 일원이 되어 남북한 평화협력의 대전환을 이룰 것 등을 촉구했다. 류재광 기자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3-7-21 재능캠프
 재능 개발·토크스, 얼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USA Tel: (951) 383-5583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livdream.com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마지막 시대 신속한 "세계복음화" 를 위한
목회자비전캠프
 "시대의 표적·영적 리더십" 2.16^T-19^F.2016
 Angeles Crest Christian Camp
 20075 Angeles Crest Hwy, Palmdale, CA 93550
 영적 리더십이 회복되어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부흥이 놀라운 교회부흥을 견인합니다.

강사진

박희민 목사	LA영락교회 전임 목사 / 해외한인장로회(통합) 중경총회장 / KWMC 명예회장 / 인터콥 고문	인터콥 고문	자문위원장	한국이사장	미주이사장
송병기 목사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 미국장로교(통합)총회장 / 인터콥 미주이사장	김명혁 목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승동 목사	한국교회연로회
최바울 선교사	중동아시아 선교사 / 한국전문인선교협회의 회장 역임 / 인터콥 본부장	김자연 목사	충신대 총장	강상삼 목사	KWMA 전회장
강요한 선교사	인터콥사역디렉터 / 한국전문인선교협회의 회장	박희민 목사	LA영락교회 건임목사	송병기 목사	해외한인장로회(통합) 중경총회장
임이스마일 선교사	인터콥 사역코디네이터 / 인터콥 MT 사역팀장	김명혁 목사	증경총회장	송병기 목사	대뉴욕교협 전회장
		원로목사	증경총회장	송병기 목사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함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전교수	증경총회장	송병기 목사	
			증경총회장	송병기 목사	
			증경총회장	송병기 목사	

www.intercp.net
 참가문의 pastorintercp@gmail.com 양규도 목사 T.213.288.1503 조요셉 강사 T.925.337.6674 변은희 강사 T.925.548.6830

“한인 선교 올림픽...KWMC 남가주에서 열려”

6월 6일부터 10일까지 아주사퍼시픽대학에서

전 세계 한인 선교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한인세계선교대회(KWMC)가 캘리포니아 주 LA 인근 아주사퍼시픽대학에서 열린다. 4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는 1988년 처음 시작된 이래 늘 시카고 휘튼대학교에서 개최됐으나 올해 처음으로 개최지를 서부 LA로 옮기게 됐다. 일정도 매년 7월에서 6월 초로 앞당겨졌다.

이 대회를 주최하는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는 이런 변화들이 ‘시대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대표대회장 한기홍 목사는 “한인 선교를 이끌어 온 이 대회가 남가주에서 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최

대 한인 인구가 거주하는 남가주 지역 한인교회에 선교의 불을 붙이는 대회가 될 것”이라 기대했다. “수백 명이 넘는 선교사가 동시에 남가주를 방문해 여러 한인교회에서 집회나 선교보고를 하면서 남가주 교회가 더욱 선교에 불이 붙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대회에는 로렌 커닝햄 목사(YWAM 총재), 오대원 목사(안디옥 커넥션 대표), 폴 애칠만 박사(CRU 대표), 마이클 오 박사(국제로잔운동 총재) 등이 강사로 참여하며 한인 중에도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서삼정 목사(아틀란타제일장로교회),



이 대회를 준비하는 교계 지도자들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동휘 목사(바울선교회), 박기호 교수(풀러신학교), 호성기 목사(필라만 디옥교회), 정인수 목사(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등이 강의를 맡는다. 또

수십 개의 선택강좌와 선교포럼에서 선교 전문가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이번 대회는 한어권과 영어권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6월 6일(월)부

터 10일(금)까지 열린다. 등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kwmc.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형 기자



남가주교협이 2016년 시무 예배를 세계아가페선교교회에서 드렸다.



시카고 한인교역자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남가주교협 시무예배 드려...교회 섬기는 남가주교협될 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2016년을 시작하는 시무 예배를 세계아가페선교교회에서 1월 24일 드렸다. 올해 남가주교협은 “교회를 섬기는 교협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한 회기를 시작한다.

남가주교협은 오는 2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사업회를 발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3월 부활절 연합예배, 4월 더불어 살기 운동본부 발대, 5

월 신용 쌓기 운동본부 발대, 6월 성령 축제, 7월 목회자와 극빈자 자녀 장학금 수여식, 8월 광복절 기념예배, 9월 남가주 목회자 영성 수련회, 10월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대회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시무 예배는 김재울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시작, 정시우 명예회장 개회사, 백지영 부회장 성경봉독(빌립보서1: 20-21)했다.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가 “바울의 소원”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후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이 축사, 엄규서 남가주한인목사회장이 격려사, 최형호 이사장 헌금 기도, 이주철 총무 광고 순으로 이어졌다.

영 김 주하원의원, 데이빗 류 시의원 등은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김준형 기자

“시카고 한인교역자회...신임회장에 유남수 목사 선출”

제47차 시카고 교역자회 정기총회가 7일 시카고연약장로교회(담임 목사 백용석)에서 열려 유남수 목사를 2016년 시카고한인교역자회(이하 교역자회) 신임회장으로 인준했다. 부회장으로는 안영배 목사가 선출됐다.

이날 30여 명이 참석한 총회에선 현 부회장인 유남수 목사(순복음충만교회 시무)에 대한 차기 회장 인준

등의 순서가 진행됐다.

유남수 목사는 “목회자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시카고에 기도의 불을 일으킬 것이다. 목회자의 영성 증진, 친교, 그리고 합심기도를 통해 목회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교역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시카고한인교역자회총회]



조나단 리 목사.

“차세대 신앙문제 해결은 가정에서”

8가지 주제 아래 패밀리 드림 프로젝트 시작된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낸 사람은 조나단 리 목사(하나크리스천센터)다. LA 한인교계 차세대사역과 문화사역의 흐름을 가장 앞서서 이끌어 온 인물 중 하나인 리 목사는 “문화사역만으로는 차세대의 근본적인 영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족 신앙’을 들었다. 차세대의 신앙 교육은 가정 안에서부터 이뤄져야 하기에 온 가족이 맞물려 돌아가는 가정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8가지 이벤트를 열어 이

른바 ‘총체적인 가정사역’을 고민해 보고 그 기본 틀을 짜려 한다. 이 이벤트들은 어린이 세대부터 노인 세대까지 포함하고 있기에 사실상 한 인가정의 전 세대, 온 가족을 다루고 있다. 이 이벤트들의 결과물들은 향후 한인가정에 딱 맞는 가정사역을 개발하는 데에 기초 자료가 된다.

먼저는 어린이 꿈 캠프다. 여름성경학교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건강한 자아상을 개발하도록 함이 목표다. 그 다음은 자녀교육 세미나로 자녀의 명문대 입학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

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부모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청소년 토크쇼는 십대 청소년들의 고민을 진솔하게 듣고 토론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답해 주는 토크쇼다. 청년 토크쇼는 20대들의 취업, 술, 성, 인생 등에 대한 주제로 이뤄진다. 결혼 준비 세미나는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성경적 부부관과 가정관을 교육하고 결혼에 대한 준비를 돕는다. 영 커플 세미나는 생업의 현장에서 분투하는 20-30대 부부들의 신앙과 인간관계 등을 돕는다. 미드 커플 세미나도 있다. 자녀들이 출가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40-60대 부부들을 위한 세미나다. 마지막은 70대 이상 노인을 위한 천성 세미나다. 천국에 들어갈 영적인, 심적인 준비를 시켜 준다.

리 목사는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과 필요에 따라 이중언어로 진행하고, 편안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기획을 한다. 또한, 각 분야에 따라 개인적인 크리스천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결혼 준비 세미나가 2월 1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결혼 프로젝트 X’라는 재미난 제목 아래 시작된다. LA의 인기 MC인 테리 송 씨가 진행하며 유명 선교사, 조나단 리 목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결혼에 대한 정의부터 최고의 결혼식 만들기, 한 가족되기 등의 주제에 대해 토론이 오고 간다. 1월 31일 등록이 마감되며 선착순 10 커플에게는 등록비가 무료다.

*문의: 323-934-0058

김준형 기자

www.sarang.com

기독교일보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2016년 표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마 22:37-40)

주일예배 (본당)

- 1부 오전 7시 20분
- 2부 오전 9시 20분
- 3부 오전 11시 20분
- 4부 (젊은이예배 Passion5) 오후 1시 20분

HolyWave English Worship [킹덤드림센터(KDC)]

- 1부 오전 9시 20분
 - 2부 오전 11시 20분
- 2부, 3부 시간에 드려지는 HolyWave English Worship은 믿음의 차세대들이 이민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예배입니다
www.holywave.sarang.com

청년·대학부

- 청년부/한어대학부: Passion5
- 영어청년부(NEXT): 금요일 오후 7시 (사랑채) 오후 1시 20분(본당)
- 영어대학부: 오전 11시 20분 (은혜채플)

교회학교 주일 2, 3부 예배시간에 함께 진행됩니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시 20분 / 토 오전 6시 20분

매달 첫 토요일예배: 오전 6시 20분 (이중 언어로 진행)

AWANA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체육관)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9시(KDC)

사랑부 발달장애우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20분, 오전 11시 20분(112호)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Sa-Rang Community Church Rev. Chang Soo Ro, Sr. Pastor

■ 본당: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 킹덤드림센터(KDC): 1990 W, Crescent Ave., Anaheim, CA 92801 ■ Tel. 714-772-7777 / Fax. 714-772-0777 / e-mail: church@sarang.com



OC교협이 지난 23일 부에나파 소재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에서 주최한 기관·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다. (맨 앞줄 왼쪽에서 7번째부터) 윤우경 OC평연 회장, 세리 린 OC한인상의 회장, 버지니아바우훈 부에나파 시의원, 민승기 OC교협 회장, 권석대 OC민주평통 회장, 한광성 통일교육LA지부 회장, 임덕순 미주복음방송 사장, 김가등 OC한인회장.

“작은교회들 교협 동참 유도...고통분담 방안 모색”

OC교회협의회 주최 기자간담회-기관·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민승기·이하 OC교협)는 23일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파 소재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6년 사업계획을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통일기도회(3월 1일), 성경통독 집중강의(3월 7-9일), 부활절연합예배(3월 27일), 영적각성 전도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4월 18-23일), 제5회 사모 블레싱 나잇(5월 19일), 기독교한인 세계선교협의회(KWMC) 주최 한인세계선교대회 기간 협력집회(6월 6-11일), 자세대 리더 및 PK 수양회(7월 4-5일), 헬라어 특강(8월 22-24일), JAMA 등과 함께 주최하는 애나하임컨벤션센터 다민족연합기도대회(10월 23일), 26차 정기총회(11월 17일) 등에 대해 설명했다.



OC교협 회장 민승기 목사.

민승기 회장은 소수의 교회들만이 교협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는 “최근에 교협을 소개하는 브로셔를 만들었다. 우선 200장을 인쇄한 데 이어 앞으로 1,000장을 더 만들 것”이라며 “어떻게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어 “11월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부회장들과 함께 오렌지카운티 지역 400여개 한인교회들을 다 돌 계획”이라며 “목적은 작은 교회들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신현철 부회장(교육)은 “한 교회라도 더 동참시키기 위해 맨발로 열심히 될 것이다. 이미 일부 교회 탐방을 시작했다”라고 했다. 노상철 부서기도 “교협과 작은 교회 목회자들

사이에 괴리가 있다. 심방, 설교준비 등 자기 교회 돌보는 일에도 바쁜 이분들은 교협에 가서 얻을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아울러 수십년 헬라어를 연구한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해 마련되는 헬라어 특강은 성경을 원어로 읽을 수 있는 비밀의 문을 열어 줌으로써 말씀 사랑의 불을 붙여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들은 교협이 올해 좀 더 포커스하고 싶은 행사로 자세대 리더 및 PK 수양회를 꼽았다. 앞으로 코리아나메리칸들이 리더십을 갖

체의 발전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간구를 올려피지게 했다.

이후 수석부회장의 사회, 윤우경 집사의 성경봉독, 신현철 부회장의 기도, 한기홍 전 회장의 설교, 조형수·이태중 목사의 합심기도 인도, 민경엽 이사장의 축도 등 순서로 1부 예배가 진행된 뒤 윤덕곤 부회장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김가등 OC한인회장, 권석대 OC민주평통 회장, 임덕순 미주복음방송 사장 등이 축사를 하고 민승기 OC교협 회장이 내빈 및 교협 임원들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2부 축하행사가 열렸다.

성경통독 헬라어특강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외 PK 수양회 사모블레싱나잇 목회자세미나 등 OC교협, 다양한 사업계획 기자간담회서 공개

민승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지역사회 복음화와 봉사활동에

의구심을 갖고 계시다.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이 자리에는 이호우 수석부회장, 조형수 부회장(신학), 윤우경 부회장(평신도), 테드 황 총무, 박용일 서기, 남상국 복지분과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임원들은 “다민족연합기도대회의 경우 지난해 행사에서 큰 감명을 받고 돌아간 백인 목회자들이 교인들과 함께 적극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통근통독’의 저자인 주혜홍 목사(에스라성경통독연구원 대표)가 강사를 맡는 성경통독 집중강의는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고 미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영적, 사회적, 지적 성숙이 절실하다는 점에서도.

기자들은 간담회에서 사모 블레싱 나잇이 하루만의 형식적인 위안에 그칠 수 있는 점, 교협이 교회를 파괴하는 이단들의 활동을 저지하는 데 미온적인 점, 북한에서 종신 노역형을 살고 있는 캐나다 한인 임현수 목사(토론토 큰빛교회) 사태에 대처가 부족한 점 등에 아쉬움을 표하고 교협 측에 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이에 앞서 기관·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가 역시 OC교협 주최로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려 미국과 한국의 영적 회복과 부흥, 오렌지카운티 지역 기관 및 단

역량을 집중하려는 교협과 함께 달려가자. 더 겸손히 섬기겠다”고 다짐했다.

민경엽 이사장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중 하나라는 OC의 발전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왔다. 우리 각자의 힘은 미약하지만 힘을 모으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OC교협은 지난달 이취임 감사예배로 25대 임기의 첫 태임을 끝낸 데 이어 11일에는 OC 지역을 대표하는 영 김 주하원의원(65지구)의 초청을 받아 새크라멘토 주정부 청사에서 조찬기도회를 가진 바 있다.

*문의: 714-321-1891(신현철 부회장) 이메일(newvision4u@hanmail.net) 김장섭 전문위원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각종보험·여행자보험

Earn your Associate degree in just ... ONE YEAR!

LAORT COLLEGE
WE PUT EDUCATION TO WORK

- Accounting
- Business Management
- Administrative Assistant
- Phlebotomy
- Medical & Clinical Assistant
- Medical Office Management
- Pharmacy Technology Administration
- Digital Media
-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CADD)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한국어 상담 그레이스(Grace)
직통: T(213)703-6863
Office: T(323)966-5444

WE OFFER:

- Financial Aid and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qualify)
- Job and Career Placement Assistance
- Day and Evening Classes
- Transportation Assistance
- Student Visa Assistance
- Accredited by ACCET

LAORT.EDU
800 NON-PROFIT SCHOOLS WORLDWIDE
1.800.998.2678

MID-WILSHIRE CAMPUS
643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48

SAN FERNANDO VALLEY CAMPUS
14519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중국 선교 후원을 위한 문화선교원 시전 제2연합시집 '아가무' 출판 감사예배를 마친 동인 및 축하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맨 앞 줄 오른쪽으로부터 다섯번째) 시전 대표 이인미 전도사, 아가무는 중국내 한 아족 정신이상 처녀가 닭장에서 나온 아이의 이름이다.

“아가무야, 저 별 보이니?”

중국 선교 후원 위한...문화선교원 시전 제2연합시집 '아가무' 출판 감사예배 드려

문화선교원 시전(대표 이인미 전도사, 이하 시전) 제2연합시집 '아가무'(시시울) 출판 감사예배가 26일 오후 LA한인타운내 한 식당에서 열렸다.

시전 동인 정한나 사모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만찬 및 시작기도에 공정범 목사(엘메델임마누엘교회 담임), 신병욱 목사(로스펠리츠교회 담임) 기도, 정우성 목사(남가주광명교회 담임) 설교, 시인이며 문학평론가인 최선호 목사와 백승철 목사 격려사, '꿈이 있는 자유'의 정종원 목사(아이엘교회 담임) 우

정찬양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시집 출판에 참여한 17명 동인들의 시낭송이 이어졌고 최명희 동인의 특별찬양과 배정웅 시인(미주시학 대표, 재미시인협회 회장) 서평, 시전 대표 이인미 전도사의 인사말과 권두시 낭독이 있는 후 동인들이 다함께 '다 표현 못해도' 찬양을 합창하며 모든 순서를 은혜롭게 마무리했다.

이 출판 감사예배를 통한 수익금은 중국내 아가무라는 한 아이를 하나님 자녀로 양육하는 후원금으로 전액 전달된다.

시집의 제목이 된 '아가무'는 시전 동인인 윤일흠 선교사(로스펠리츠교회 은퇴목사)가 선교하고 있는 중국의 쓰촨성 아족마을에 사는 가슴아픈 소녀의 이름이다. 이 소녀는 미친 처녀가 닭장에서 나온 미친 엄마의 딸이다. 어쩌면 아가무는 '미친 엄마의 딸'이 아닌 이 시대가 낳은 '우리의 딸'일지도 모른다.

시전은 'QT를 통한 시 창작 교실'과 심화모임을 통한 글항기를 시로 승화시키며 문화선교를 지향하는 단체다. 문의: 이인미 전도사(818-590-6469) 이영인 기자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이 24일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2016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

남가주밀알선교단...94명에게 14만 8천 4백달러 장학금 지급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 이하 남가주밀알)이 24일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남가주밀알이 올해 94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14만 8,400달러를 전달했다. 2001년부터 남가주밀알이 지급한 장학금은 무려 195만8,400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남가주밀알은 인기가수 바다를 초청해 밀알의 밤 행사를 개

최했으며 행사 수익금과 각종 후원을 통해 20만6,594.75달러를 모금했다. 여기서 행사 개최 비용과 광고 비용으로 5만6,507.02달러를 지출하고 15만8,773달러를 남겼다. 이 잔액 가운데 14만8,400달러가 장학금으로 지원된 것이다.

장애인 학생 14명이 각각 3,600달러씩 받는 것을 시작으로 꿈나무 장학생 28명, 에디슨 장학생 5명, J&J장학생 2명, 제임스윌드와 이드 장학생 5명이 각각 1천 달러

씩 받았다. 근로복지생 5명도 각각 3,600달러씩 받았다. 이 외에도 한국의 학생 10명과 필리핀, 웨스트사하라 등지의 학생 10명이 각각 1천 달러를 받는 등 총 94명이 수혜자로 선정됐다.

남가주밀알 측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두의 헌신과 사랑으로 장학금이 마련되었기에 더욱 뜻깊으며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했다.

김준형 기자



◆하나투어와 함께 하는 은혜와 감동의 이스라엘 성지순례 ㉔

〈나사렛 편〉

나사렛은 예수께서 태아에서부터 유년기를 거쳐 성년이 되까지 일생을 보낸 고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항상 나사렛이라는 말이 붙어 다닌다. 그리스천이라는 말도 히브리어로는 '노프리', 아랍어로는 '나스라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나사렛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 이곳 나사렛은 오래 전부터 도시가 발달했고, 초기 로마 시대 때 특히 번성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을 예고한 곳에 세운 마리아수태고지 교회,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 목수일을 하고 있었다는 요셉 교회가 있다.

1. 가나혼인잔치 기념 교회

예수께서 행한 첫 번째 기적, 초대 받으셨던 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을 기념해 지은 교회다. 교회 벽에는 이 기적을 묘사한 그림이 있으며 건물 지하에는 옛 포도주 항아리가 보존돼 있다.

3. 요셉 교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목수일을 하고 있었다는 장소에 세운 교회. 수태고지 교회에서 50m 정도 떨어져 있다. 프란체스코 수도회 소유로 현 건물은 십자군 시대 교회 위에 1914년 다시 건축한 것이다. <계속>



2. 마리아수태고지 교회

신약에 따르면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다.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 마리아에게 수태를 알렸다고 전해지는 동굴 위에 교회를 세웠다. 아직도 교회 지하에 동굴이 보존되어 있다.

문의: 엘레이 본사(213)736-1212
김상준 매니저(213)201-5369
무료전화: 1-877-464-6121
FAX: (213)736-1221, (646)349-3971
웹사이트: www.usahanatour.com
주소: 3053 WEST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매니저 김상준.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지사명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렌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기독교일보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교회협의회

“너무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회장 민승기 목사와 임원일동

회개운동의 기폭제

에스라 10:1-1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회개로부터

회개란 다른 곳을 향해 제멋대로 달려가던 인생이 말씀과 성령의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어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운동(悔改運動, Repent Movement)이라고 합니다.

본문은 제사장으로서 학사였으며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태어난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자기 민족의 불행과 비극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과 권위를 무시하며, 제멋대로 육체의 입장에서 살아가느라 영적인 소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에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서두르기 위해 자신이 먼저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생활로 바꿨습니다.

페르시아(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다시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과정에 아닥사스다 왕에 이르면서 에스라는 그 시대에 서기관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는 비록 포로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유식하고 촉망받는 출세한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면, 더 심한 재앙과 시련 가운데 멸망당하게 될 것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이것은 사망자의 발로(發露, 숨은 것이 겉으로 드러나거나 숨은 것을 겉으로 드러냄)이기도 하고, 마땅히 가져야 할 본질적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2.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백성

B.C. 538년 제1차 포로귀환(스 1-6)은 스톱바벨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그들이 24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육에 속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종교적 지도층 인물이었다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성전에서 예배하던 찬양대원들, 성전을 지키던 경비들 같이 성전에서 먹고 살고, 대접받고, 봉사해야 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16절을 보면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찌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네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미신, 우상에 물들어 악령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민(選民, 하나님 이 거룩한 백성으로 택한 민족이라는 뜻)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애굽 여자인 아스낏과 혼인하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낏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두 아들을 낳고 이방인이었지만, 남편인 요셉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믿음을 같이했습니다.

약 400년 후에 있었던 모세도 애굽 공주의 양자로 살면서 많은 애굽 문물을 습득했습니다. 그 후에 광야로 도망쳐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혀 왔던 미디안의 사제 이드로의 일곱 딸 가운데 하나인 심보라와 혼인했습니다. 심보라도 마찬가지로 모세와 그 믿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원주민의 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금기령을 내리신 이유는, 그들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연유로 이방 여인들을 따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3. 순종하고자 하는 착한 마음이 갖든 회개

하나님이 에스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여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많은 재물과 함께 1,754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지키심으로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1차 귀환으로 먼저 와 있던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도 몰랐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이방 여인들과 왜 혼인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 살면 그 말씀이 너를 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 쪽은 그 말씀을 지켜 살지 않으면 멸망하여 지옥으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 “하라”와 “하지 말라” 뿐입니다.

“하지 말라”하셨는데 했으니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움 받은 에스라는 죄를 짓지 않은 자였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는 죄는 이스라엘이 지은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자기 백성의 죄를 애용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죄 값으로 이스라엘이 또 다시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며 부르짖고 매달렸습니다.

에스라가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소망적인 것입니다. 에스라의 회개에 동참하는 회개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2절에서 스가나가 에스라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라고 한 말은, 하나님이 에스라를 어떻게 보내으셨는지, 그 에스라가 왜 그토록 애용하며 회개를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저주받은 이방 여인들과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죄를 에스라를 통해 지적하시며 책망하시면서 서둘러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회개만 이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스가나는 술선하여 함께 살던 이방 여인을 그 자식과 함께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찾아가 “곧 내 주의 교훈을 좇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좇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하며 의욕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운동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4. 진실성을 인정받는 회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 바른 목회를 하자고 애써 오는 과정에서 야단도 치고 징계도 하지만, 온전한 회개와 변화가 없다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스라는 총회를 열어 누구든지 3일 안에 다 모이도록 했고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좇아 삼 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적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스 10:8)”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

을 통해 에스라에게 준 특권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26절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징배하거나 가산을 적몰하거나 옥에 가둘찌니라”고 에스라에게 특권을 주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삼 일 안에 모두 모였고 에스라는 그들에게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스 10:10-11)고 명합니다. 입으로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여 진정한 회개의 진실성을 인정받아 그 죄를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소망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땐 그 죄를 정리하는 결단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들이 함께 살던 이방 여인들과 그 자식들을 돌려보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최악의 끈을 끊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12절에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나이다”고 힘써 이 일을 행하기로 답하고 석 달 동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들을 파양했습니다. 그런데 112명 중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므솔람과 레위 사람 삼브대가 저희를 돕더라”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에스라에게 주어진 특권대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것은 에스라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그를 보낸 아닥사스다 왕을 거역하는 것이고, 결국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장재효 목사 초청 목회자 세미나

“목회 57년 돌아보니 불초한 종 쓰신 하나님 은혜뿐...”

목회 인생 반 세기를 넘겨서도 아직 전 세계를 돌며 제자를 세우는 장재효 목사 (서울 성은교회 담임)

주제: 구령성과 위한 바른 목회 특별세미나

- 시간 : 2016년 2월 15일(월) 오전 10:30
- 장소 : JJ 그랜드 호텔
620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05
- Tel : (213)383-3000
- 집회 문의 : (213)739-0403, (213)434-1170
- 주최 : 성은 바른목회 연구원

* 자리예약 필수(식사 제공)



장재효 목사
서울 성은교회 담임

후원 : 남가주한인목사회, 기독교방송, 복음방송, 남가주여성목사회, Cts 기독교방송

Christian Preschool 원장 초빙

2016학기 Christian Preschool 자체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을 초빙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돌보며 Preschool 운영에 열정을 가지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자격: 원장 Director License 소지자
State Policy 규정에 의해 Preschool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유경험자
한국어 / 영어 Bilingual 필수

제출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서, 자기소개서

제출처: 선한목자교회
우편접수: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이메일접수: info@sunhanchurch.com

문의: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박성진 칼럼

자네, 정말 그 신학교에 가려나?

오래 전 일이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려고 할 때 어떤 분이 김남준 목사의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란 책을 권해서 읽어본 적이 있다. 그 책은 이제 막 신학의 길에 들어서는 나에게 격려보다는 절망과 두려움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시금 확인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 책의 3장에서 김남준 목사는 참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성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지성적 준비란 성경과 신학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실천적 소양을 겸비하는 것을 가리킨다. 능력만 있으면 지식은 중요하지 않다는 은사주의 위주의 목회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공허한 목회자를 양산한다. 반면 지식만 있으면 목회를 탁월하게 감당하리라는 지식만능주의적 사고는 교만한 목회자를 만든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셨다! 예수님의 분을 받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지성적 준비가 우리 모든 목회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신학교에 몸담고 있기에 많은 목회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목회 사역에 학문적이면서 실천적인 준비가 되도록 분투하고 있다.

많은 한인 목회자들이 여러 박사 학위 과정에 지원하는데, 그 가운데는 정식으로 인가되지 않은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상급 학위과정으로 진학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그럼, 왜 정식으로 인가되지 않은 신학교에서 공부했는가를 물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곤 하는데, 그 중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다.

첫째는 다닌 학교가 정식 인가를 받지 못한 학교인 줄 몰랐다는 것이다. 둘째는 F1 비자발급으로 신분이 해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질 좋은 신학 교육을 받으려면 어떤 신학교에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민 한인교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성도들이 지난 15년간 첫 번째로 짚는 문제점



박성진 학장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아시아부

의 하나가 목회자의 자질 문제다.

이 문제는 비인가 신학교의 난립과 높은 수준의 신학 교육 부재라는 문제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물론 정식으로 허가된 신학교가 질적으로 좋은 신학교육을 제공하느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는 있다. 신학교 정식인가기관은 고등교육 학위과정에 어떤 수준의 교재를 어느 분량 정도 읽어야 하는지, 일주일에 학생이 몇 시간을 공부해야 달성할 수 있는 분량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는지, 수업 내용은 해당 학위과정에 적합한 수준인지 등의 상세한 질문과 평가를 통해 학위과정을 인가해 준다. 이런 까다로운 과정이 질적으로 높은 신학교육이 가능하게끔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인가받은 신학교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미국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인가는 ‘고등교육인가기관’, 즉 CHEA(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가 관장하고 있다. CHEA는 미연방정부 문교성의 승인에 따라 미국대학 교육의 질을 보증하는 인가기관들의 역할을 촉진 및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이 기관 산하에 미국대학과 대학원에 인가를 주는 고등교육위원회(HLC: Higher Learning Commission)가 있고 신학교에 정식인가를 주는 기관이 3개가 있는데, 북미에 설립된 신학대학원의 인가기관인 신학대학원협의회(ATC: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성서대학의 인가를 관장하는 성서대학협의회(ABHE: 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그리고 미국기독교대학/대학원협의회(TRACS: Transnational Association of Christian Colleges and Schools)가 그것이다. 비인가신학교란 이들 네 기관 중 어느 하나로부터 인가되지 않은 신학교를 의미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가”(accreditation)와 “승인”(approval 또는 authorization)은 다르다는 것이다. 어느 학교는 주정부로부터 학위과정을 승인받았다고 광고하는데 이는 주정부의 승인을 받았을 뿐, 공인된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은 아니다. 인가는 주정부가 권장하지 않고 CHEA 산하의 인가기관에 의해서만 주어진다. 이렇게 광고하는 학교는 비인가신학교이다. 한 가지를 추가하면, 어느 학교는 ATS의 “준회원”이라고 소개한다. ATS 내에는 회원 종류가 세 가지다. 준회원(Associate), 후보회원(Candidate), 그리고 정회원(Accredited)이다. 이중 정회원 신학교만이 연방정부의 학비유자를 받을 수 있고 정식인가를 받은 신학교이다. 준회원과 후보회원은 정회원이 되기 위해 신청하면 심사단계에 따라 부여하는 이들에 불과하다. 몇 년에 걸친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서 정회원이 돼야 정식 인가를 받게 된다.

어느 신학교를 가느냐는 신학의 길에 들어선 본인의 결정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려진 명령에 바르게 순종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질 좋은 신학교를 선택해야 한다. 질 좋은 신학교육이 지성적으로 준비가 되고 인품을 갖춘 목회자를 배출한다고 자랑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기초임은 부인할 수 없다. 예수님이 교회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 것처럼, 목회자도 질 좋은 신학교육 위에 자신을 드러야 할 것이다.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ITC)
- P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거듭 말씀으로 돌아가자

지혜란 원천에 머무는 능력이다. 원천이란 물의 근원지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생수의 원천이시다. 우리는 거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생수의 원천이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듭 근본으로 돌아가는 사람, 거듭 기본을 다지는 사람이다. 우리가 거듭 돌아가야 할 분이 있다. 하나님이시다. 또한 우리가 거듭 돌아가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 돌아가야 한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한 해 동안 성경을 한번 통독해야겠다는 결심을 갖는다. 때로는 결심한 바를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한다. 하지만 거듭 그런 결심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거듭 그런 결심을 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영혼에게는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다. 예수님을 통해 태어난 새 생명은 말씀을 먹고 자란다. 사람들이 제계 목양(牧羊)이 무엇인냐고 물어볼 때면 목양은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설교는 양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설교는 아주 소중한 여겨져야 한다. 설교는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거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까? 말씀은 생명의 떡이요, 생수이기 때문이다. 물이 흐르는 곳에 식물이 자라듯이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이 흐르는 곳에 영혼이 자란다. 말씀은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다. 빛은 깨달음이다. 말씀의 빛을 받으면 깨달음을 얻게 된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다.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 예수님을 만난다. 성령님을 만난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다.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 받은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 말씀 속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담겨 있다. 세상의 어떤 책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보화가 말씀 속에 담겨 있다.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은 치유의 능력,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 고난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능력,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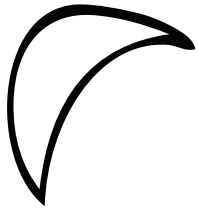
말씀은 창조주 능력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다. 말씀은 씨앗과 같다. 말씀이 심겨지면 언젠가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다. 마음의 정원에 말씀을 심고, 마음의 그릇에 말씀을 담아 두면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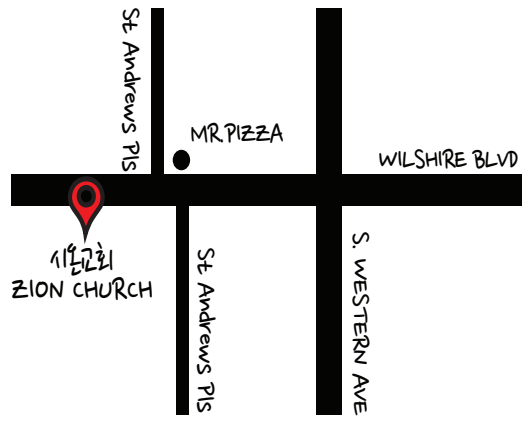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안전한 길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깨달음을 주신다. 그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는 여러 음성을 듣고 산다. 어떤 음성은 양심의 음성, 마귀의 음성, 사람들의 음성이다. 어떤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거듭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한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 우리가 말씀과 접촉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 사람은 자신이 접촉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말씀과 접촉하는 순간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가 거룩한 말씀과 접촉하는 순간 거룩함을 경험하게 된다.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요 1:1). 그런 까닭에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성경 전체를 한번 통독하길 권유한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성장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온교회 한글학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교육하고, 이중언어, 이중문화의 이해자 그리고 전달자로서, 미국과 한국의 문화와 정서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돕고 두뇌개발을 위한 교육들을 통해 창의력과 독립성을 키워 우수한 KOREAN-AMERICAN 으로 자라도록 노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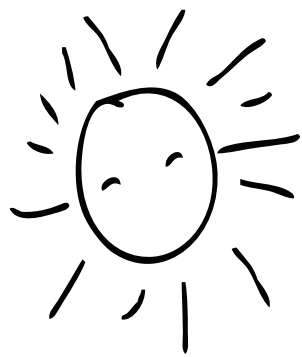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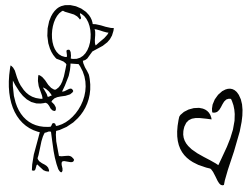


2016년 봄학기 기간 5개월 (2/6-6/18)

시간: 매주 토요일 9AM-1:30PM

장소: 시온교회 (3912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연락처: 윤 태숙 교장 1 (213)787-3312
WWW.LAZIONCHURCH.COM



두뇌개발 특별활동- 학생들이 선택

- (1) 피아노 그룹 레슨
* 음악을 통해 정서발달과 두뇌개발을 도움
- (2) 체스게임: 6세 이상
* 집중력과 끈기, 사고력을 발달시켜 두뇌개발에 좋은 게임
- (3) 종이접기 ORIGAMI
* 집중력과 창의력을 키워 두뇌개발에 좋은 놀이
- (4) MATH / 숫자놀이 / 레고
* 학생들의 레벨에 맞춰 수리력과 이해력을 돕는 숫자 놀이
- (5) BABY SIGNING 유아 수화반: 4세 이하
* 유아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며 의사소통을 돕고 단어력을 높임
- (6) ART & CRAFTS
* ART CENTER 졸업 & ANIMATION DESIGNER로 현재 활동중인 선생님
* 창의적 영재 미술 교육, 사고력을 길러주고 자기주도성을 키움
- (7) 기타 그룹 레슨: 6세 이상
* 음악을 통해 정서발달과 두뇌개발을 도움

시간표	
AM 9:00-11:00	한글학교
11:00-11:30	KIDS FITNESS & WORKOUT GAMES
11:30-12:00	BIBLE STUDY
PM 12:00-12:30	점심식사
12:30-1:00	특별활동 CLASS1
1:00-1:30	특별활동 CLASS2

★ 한학기 (5개월) 학비 \$320
=(둘째 아이부터 20% OFF)

*Ask for student volunteer opportunities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너는 냉골째 굴러들어온 복덩어리라고 말해 준다면 그보다 보람있는 인생이 또 있을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창 12:2)는 말씀을 꼭 잡고 인생 달음질을 하는 축구인 김석범 선

교사는 바로 그런 삶을 꿈꾸는 사람이다. 영어 이름이 아브라함인 그에게는 허무와 비탄을 향해 가는 불신자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 주는 일이야말로 최고의 복을 선물하는 것이라는 반석 같은 확신이 있다.

“공만 차지 않고 가서 제자 삼는 것이 목표”

기독교일보 초대석

그린에인절스 축구선교단 김석범 선교사

김 선교사가 'Go and make disciples'를 모토로 그린에인절스축구선교단(Green Angels Mission Soccer)을 창단한 것은 12년 전. 지금은 대표 및 감독으로서 '디사이플스 세미프로팀'(약 20명), '그린에인절스 성인 동호인팀'(약 20명), 청소년들로 구성된 'B17팀'(약 15명) 등 3개 팀을 거느리고 사역하고 있다.

후암초등학교에서 연세대 시절에 이르기까지 줄곧 선수생활을 했던 그는 국가대표를 거쳐 U-20 대표팀 감독까지 지낸 축구인 김찬기씨(2011년 소천)를 부친으로, 역시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아 한국 부자 국가대표 1호를 기록한 김석범씨를 형으로 둔 '사커 패밀리'의 일원이다.

축구팀의 사령탑인만큼 최선을 다해 선수들에게 공수 기술을 가르치고 전술을 지시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의 관심은 그라운드 안팎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길러내는 사역에 쏠려 있다.

“젊은 시절부터 찬양사역을 했기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 왔어요. 그런데 오래 전 참석했던 한 세미나에서 '인생 여정표'를 짜는데 어떤 목사님이 조언해 주셨어요. '너에게 찬양인도는 부수적인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인 축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그때 비로소 제 인생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후 그는 한인사회 유일의 축구선교단을 만든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결단하지 않고 '축구를 통한 복음전파'의 외길을 걸어 왔다. B17팀의 경우 선수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모여 제자훈련 성경공부를 하고 8

시부터 2시간 동안 공을 찬다. 김 선교사는 평소에도 '생명의 삶'을 통해 QT를 한 뒤 그 룩카복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이들을 지도한다.

선수들은 때때로 작은 교회들을 방문, 찬양 및 간증 집회를 가짐으로써 나눔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을 견고히 다진다. 지난달 학부모 등 50여 명이 함께한 크리스마스 벅킷에서는 뜨거운 찬양을 하고 16절에 이르는 성경을 암송하는 시간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도 했다. 이들이 외운 구절 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린에인절스는 풀러튼, 부에나팍, 세리토스 등에서 50여 명이 참가하는 유소년 축구교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김 선교사는 희망하는 어린이들에게는 QT 훈련도 실시한다.

“안타까운 사실은, 부모는 신앙생활에 열심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을 때까지 계속 그들의 심령 속에 말씀을 넣어주고 양육하려 합니다. 이처럼 공동체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점을 교회들이 인식하고 끊임없이 복음 메시지를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주의 주인인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대신 죽었다. 제발 그것을 좀 알아 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애타게 바라시는 단 한 가지 아닐까요?”

사역의 최우선 순위가 영혼 구원이기에 그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팀에 들어올 때마다 기회를 만들어 복음을 제시한다. 그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여럿이다. 고교생도 있었고 디사이플스 세미프로 선수도 있었다. 7년 전에는 이란 출신의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 가족들까지 교회로 인도해 오는 놀라운 일까지 일어났다. 김 선교사는 6개월간 미국교회를 함께 다니며 그의 신앙 정착을 도왔다.

그는 2년 전 '그린에인절스배 교회대학 축구대회'를 창설했다. 올해 6월18일 세리토스 리저널팍에서 제3회 대회가 열린다. 디사이플스(리그 14개 팀중 3~4위 권)와 멕시코 티화나의 글로리아선교 축구단 세미프로팀간 오

프닝 경기로 시작되는 이 토머먼트에서는 입장식 도중 메시지 선포, 드라마 공연, 찬양



축구장 안팎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김석범 선교사.

복음전파 위해 선교회 설립 3개 팀 두고 활동 청소년들에게 공차기뿐 아니라 말씀도 가르쳐 QT훈련 성경암송 통해 그리스도 제자로 양육 축구대회 창설해 불신자들에 주님 사랑 전파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로 시작되는 시편 1편은 젊은 날 창조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인생의 참 행복임을 사춘기 아이들에게 깨닫게 했다.

청소년들은 매년 수양회를 통해 영적 팀워크를 다진다. 캠프장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이들은 QT와 성경암송을 중심으로 영성훈련을 하고 공도 잘 뿐 아니라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밤늦도록 캠프파이어 곁에서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의 팀으로 빛어져간다.

올 봄에도 레이크페리에서 수양회가 열린다. 김 선교사는 2011년에는 청소년, 대학생, 성인 등 20명을 이끌고 21일간 미 대륙을 횡단했다. 대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축구정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등의 순서가 진행된다. 단 한 가지 목적,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세상 모든 나무를 깎아 펜을 만들고 온 인류가 서기관이 되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다. 그린에인절스는 성인 동호인팀도 축구경기 중간에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아마 한인사회에 이런 정신으로 축구하는 팀은 없을 것입니다. 영적 사역이 갈수록 확대돼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뿐 아니라 경건의 훈련에도 힘쓰는 우리들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린에인절스는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다. 팀들을 운영하고 세미리기에 참가하는 데는 최소 1년에 2만달러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늘 허덕이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친구, 지인들의 지원으로 어렵사리 축구선교단을 꾸려왔다”는 그는 “크리스천 독자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로 후원해 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도내이션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지만 단단한 사랑의 공동체인 라미라다 소제 섬기는교회(담임 김상현 목사)의 파송을 받은 김 선교사. 그는 주님의 '대사명'(The Great Commission)을 감당하는 꿈 없이는 잠들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 삶을 향해 오늘도 최선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9-20).

•후원 문의: 714-319-7978 김장섭 전문위원



그린에인절스축구선교단 B17축구팀. 이들은 김석범 선교사(뒷줄 맨 오른쪽)로부터 공차기를 배울 뿐 아니라 영성훈련도 받는다.

201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TRACS, ATS 정회원
- 기독교학위(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4-213-407-469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유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열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 admissions@aeu.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의 폐해 및 삭제 개정 필요성' 2016 국회 포럼이 열리고 있다.

“동성애 법적 존중·보호돼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법 ...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의 폐해 및 삭제 개정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차별 금지조항」의 폐해 및 삭제 개정 필요성’ 2016 국회 포럼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강서시민연대와 바른성문화화를위한국민연합, 선한문화창조본부가 주최한 이날 포럼에서는 김정록(새누리당)·임내현(국민의당) 의원과 김영진 상임대표(한국교회회평신도5단체협의회)의 격려사, 서태섭(강서시민연대)·최석우(선한문화창조본부) 대표의 축사 후 한효관 사무총장(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사회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김정록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서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성적(性的)지향’을 명시, 과연 동성애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존중되고 보호돼야 할 영역인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동성애에 관한 법적·사회적 합의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부당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헌법 및 민법상 이성 간의 혼인만 허용되고 동성 간 혼인은 허

용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백히 선언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같은 해 균형법 동성애 금지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며 “따라서 도덕적으로 비난해선 안 되는 행위로 보아 동성애 반대행위를 차별행위로 규정할 인권위법 정신과는 명백히 반대되는 가치판단이고, 인권위가 2011년 ‘인권보도준칙’에서 동성애 성행위를 잘못된 것으로 평가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을 금지한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길원평 교수(부산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의 문제점과 폐해’를 발표했다. 그는 “2001년 인권위법이 만들어질 때는 ‘성적지향’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것조차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이라며 “이제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활동에 의한 폐해가 사회 전반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므로, 진지하게 법적 고찰을 할 때가 됐다”고 했다.

이 외에 고영일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문제점 및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에는 박서영 법무사(선한문화창조본부)와 조우석 평론가(KBS 이사) 등이 지정토론을 펼쳤고,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이대웅 기자



바른교회아카데미가 “퀴바디스, 한국교회!”란 주제로 25일과 26일 장신대에서 ‘2016 바른교회를 위한 한국교회 진단과 대안’ 세미나를 진행했다. ©바른교회아카데미 제공

“퀴바디스, 한국교회!”

바른교회아카데미 ... ‘2016 바른교회를 위한 한국교회 진단과 대안’ 세미나 개최

“퀴바디스, 한국교회!” 대상화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요즘 같은 한국교회 상황을 한 눈에 바로 알 수 있는 주제다. 바른교회아카데미가 동 주제를 갖고 25일과 26일 장신대에서 예배와 설교, 교육, 전도, 봉사 등을 소재로 ‘2016 바른교회를 위한 한국교회 진단과 대안’ 세미나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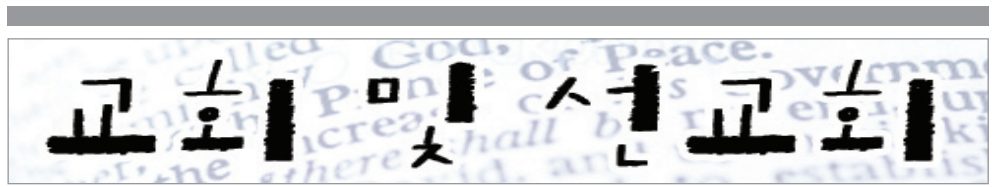
특히 “바른 교회를 위한 한국교회의 ‘선교(전도) 진단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한 최형근 교수(서울신대)는 “현재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한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말하고, “우리 안에 내재된 본질의 왜곡에 대한 복원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본질을 찾는 일은 지금껏 교회가 추구해온 신학과 신앙의 쟁위들을 벗어나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삶으로 살아내려는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최형근 교수는 “10대와 20대의 교회에 대한 평가는 점점 더 냉소적으로 변해가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성도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2030 세대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절벽세대로 불리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한국교회의 젊은 세대는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신앙적 차원에서도 사망에서 압박해 오는 절벽을 느끼고 있다. 다음 세대를 구비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현 세대에 속한 남자들이 기독교 왕국의 유산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회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

고 확신한다. 그것은 ‘뿌리(본질)를 건드리는’ 급진적(radical)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고 했다.

최 교수는 “신학은 본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고 정의하고, “교회와 마찬가지로 신학교육 기관들도 공동체와 제자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신학 하기에 대한 반성과 고민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다음세대를 위해 긍정적인 징후”라고 했다. 이어 “선교적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보냄 받은 가장 가까운 이웃의 삶에 신실하게 참여해 그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변화를 추구한다”면서 “선교적 교회는 주일을 중심으로 교회에 모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과 일터의 삶에서 이웃들과 개방된 교류를 하며 경제, 정치, 문화, 사회, 환경 등 공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육신적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고 했다.

또 최 교수는 “선교적 교회의 원리는 공유경제와 협력적 주거공동체, 생활협동조합, 도농 상생공동체 등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구현하는 것으로 구체성을 띤다”고 했다. 한편, 최형근 교수의 발표 외에도 김세광 교수(서울장신대), 유경재 목사(안동교회), 박원호 목사(주님의교회), 이승열 목사(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 등이 발표했다. 또 성경공부는 안용성 목사(그루터기교회)가 “신약 교회의 토대가 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제로 이끌었다. 이수민 기자



LA 지역	
<p>1부예배 오전 8:00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결중학교 / 토요일-1가와버트 크니 주중새벽-6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p> <p>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면2세대를 책임지며, 이면가정을 지원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p> <p>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p>	<p>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예배 오전 11:20</p> <p>연제선 담임목사</p> <p>LA 온하늘교회</p> <p>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 (818) 983-9024</p>
<p>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p> <p>장태원 담임목사</p> <p>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p> <p>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p>	<p>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p> <p>한천영 담임목사</p> <p>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p> <p>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p>
<p>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p> <p>엘리아 김 담임목사</p> <p>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p> <p>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p>	<p>1부예배 오전 7:40 E모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진유철 담임목사</p> <p>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p> <p>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p> <p>한기형 담임목사</p> <p>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p> <p>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예배 오후 1:00 토요일부흥 토 오전 9:30-12:30 한어침남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p> <p>서건오 담임목사</p> <p>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사가는 교회</p> <p>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cpla.org</p>
<p>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침남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p> <p>박헌성 담임목사</p> <p>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p> <p>325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p>	<p>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p> <p>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p> <p>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정오 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 (토)</p> <p>정우성 담임목사</p> <p>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p> <p>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p>	<p>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일예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p> <p>김경철 담임목사</p> <p>산타모니카찬송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p> <p>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502-9999 / www.smkc.us</p>
<p>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0:30 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신현호 담임목사</p> <p>새하늘 교회</p> <p>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p> <p>조인수 담임목사</p> <p>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p> <p>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p>
<p>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00 토요일복된 모임 오전 11:00</p> <p>김영구 담임목사</p> <p>나눔장로교회 엔키아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p> <p>3407 W. 6th St. #804, Los Angeles, CA 90020 T. (310) 404-6219</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p> <p>김요섭 담임목사</p> <p>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p> <p>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서와 월튼 옆) T. (213) 380-0071</p>
<p>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p> <p>정장수 담임목사</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말, 마음, 꿈, 열매</p> <p>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p>	<p>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행 (정부 배너 및 전단지)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p> <p>요한 선교회</p> <p>gka44@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p> <p>류종길 담임목사</p> <p>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p> <p>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p> <p>신승훈 담임목사</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p> <p>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p> <p>이명수 담임목사</p> <p>청운교회 선교에 호름, 소신, 초 정신의 호름, 바른교회관의 호름</p> <p>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p> <p>민종기 담임목사</p> <p>충현선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p> <p>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p> <p>곽부환 담임목사</p> <p>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p> <p>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강지연 담임목사</p> <p>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화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는 교회</p> <p>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p>
<p>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p> <p>Bryan Kim D.M.D.</p> <p>김범수 치과</p> <p>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 (213) 389-0937, (213) 389-0938 F. (323) 735.1937</p>	<p>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p> <p>오늘 성경 읽으셨나요?</p> <p>에스라성경동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p> <p>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p>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선양성경집회 오후 8:00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수요선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김성민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 872-2405, F. (626) 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화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랑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목) 오전 10:00-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일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일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다민족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 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후 7:30
금요일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 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 /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저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및/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및/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 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 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일성경대림회 금요일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선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n.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0:00(25년)
KJ예배 오후 3: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비율 담임목사

도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사교유년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수요선양예배 오후 7:20
주일성경공부/사교유년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 F.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금요일성경예배 오후 8:00 (금)
Awana 오후 8:00 (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없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6:00 (토)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6:00 (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민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일성경 집회 - 저녁 7: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주일 영성예배 9:30am, 11:30am
수요말씀예배 7:1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새벽예배 월-금 5:30am
1514 Rinalto St., Northridge, CA 91325 1515 S. Santa Fe Ave., LA, CA 90021
T. (818) 363-5887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org
e-mail: icccc.office1@gmail.com

“美남침례회, 구조조정 착수”

국제선교이사회... 버지니아 센터 폐쇄하고 직원 감축



데이비드 플랫 목사 © SBC hymn image

미국 남침례회 국제선교이사회 (IMB)가 버지니아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폐쇄하고 직원을 30명 줄이라고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전 이사회가 오는 2017년까지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2단계의 구조조정에 돌입한 데 따른 것이다.

전 세계 4만여 교회와 1,600만 성도를 대표하는 IMB는 오는 4월 29일까지 리치몬드 커뮤니케이션 센터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14일 전했다. 기관에서 일하던 직원들 중 10명은 IMB 내의 새로운 일을 맡기로 했으며, 나머지 30명은 4월 말까지 일을 계속할 것인지 고려 중이다.

IMB의 데이비드 플랫(David Platt) 대표는 성명을 통해 “리치몬드 사무실에는 훌륭한 봉사자들과 지도자들이 있다. IMB는 이들에게 많은 빛을 쬐다. IMB를

통해 그리스도를 섬겨왔던 수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IMB는 작년 8월 예산 감소 때문에 600-800명의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각 나라에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교회가 맡긴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IMB는 그동안 자신들의 활동과 관련된 기사, 사진, 영상 등을 제작해 온 리치몬드 커뮤니케이션 센터의 문을 닫기로 했다. 그러나 미디어 콘텐츠는 계속 생산할 계획이다.

또한 ‘손들 기회’(Hand Raising Opportunity)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으로 이끄신다고 믿는 선교사들과 미국 내 회원들이, IMB 밖에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갖게 하는 요청”이다. IMB는 IMB 밖에서 일하기로 한 직원들과 명예퇴직자들과 관련된 공식 통계를 2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이혜리 기자

“휘튼大, 호킨스 교수 해임해야”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주장... 교수회의 해임 절차 철회 움직임에 우려 표명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그레함 페이스북

지난해 말 “기독교인과 무슬림은 같은 신을 섬긴다”는 발언으로 휘튼대학교에서 종신교수 직위가 해제됐던 라리시아 호킨스(Larycia Hawkins)와 관련, 최근 교수회의에서 해임 절차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빌리그레함전도협회 회장)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레함 목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의 아버지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어머니 모두 일리노이의 휘튼대학교를 졸업하셨다. 사실 그곳에서 만나셨다. 그런데 휘튼대학교가 라리시아 교수에 대한 해임 절차를 철회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놀라고 실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는 작은 논란거리가 아니다. 이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가 하나님임을 부인한다.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슬람과 기독교는 분명 동일한 신을 믿지 않는다. 어떻게 이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 같이 가르치는 것을 교수회의가 지지할 수 있는지 너무 우려된다”고 했다.

휘튼대학교는 성명을 통해 “교수회의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호킨스 교수의 인사 문제를 다룰 학부인사위원회의 청문회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의 정치과학과 협력교수인 라리시아 호킨스는 지난해 무슬림들과의 연대를 위해 히잡을 두르겠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호킨스 교수는 더 나아가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해 논란에 불을 지폈

다. 결국 휘튼대 스탠튼 존스 교무처장은 그녀의 종신교수 직위에 대해 해제 절차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학생들과 동문들이 호킨스 교수에 대한 찬반으로 나뉘었다. 심지어 휘튼대 졸업생 815명은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후원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휘튼대는 비공식적으로 교수회의를 열고, 호킨스 교수를 해임하기로 한 기존의 입장을 재고해 줄 것을 학교 측에 요구할지 여부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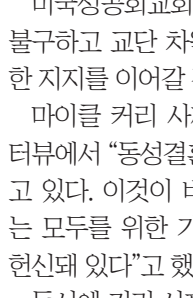
호킨스 교수는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해명하기 위한 4장짜리 진술서를 존스 교무처장 앞으로 보내기도 했다. 그녀는 진술서에서 “나는 이슬람교(그리고 유대교)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령을 부인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또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다. 그렇지만 내가 알았던 언젠은 기독교인이나 삼위일체 신학이 아닌, 구체화된 신앙심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동일한 신을 섬긴다”고 한 것은, 주로 ‘경건한 무슬림들이 기도할 때, 한 분의 진정한 신께 나아간다’는 의미였다. 그 신은 단순하게 신이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그레함 목사는 “완전히 틀렸다”면서 “그녀는 성경도 이슬람도 알지 못한다.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셨으며, 우리를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셨다. 이슬람의 신은 천국에 가려면 자신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바치라고 한다. 이는 커다란 차이이다. 이 외에도 많은 예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성공회교회, 동성결혼 계속 지지할 것”

세계 성공회교단... 동성결혼 지지 미국성공회교회 3년간 제재



세계 성공회교단

미국성공회교회가 3년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교단 차원에서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커리 사제는 15일 AP와의 인터뷰에서 “동성결혼 반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기도의 집이 되는 일에 헌신돼 있다”고 했다.

동시에 커리 사제는 결혼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공회의 일치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할지 원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공회 교단의 정통 회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더 나은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소명의 일부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의 성공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은 14일 관구장 회의를 열어, 동성결혼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미국성공회교회에 대해 약 3개월간 제재 조치를 실시

하기로 결정했다.

성공회 대표자들은 “성경적 가르침의 관점에서 우리의 전통적 교리는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 간의, 일생에 걸친 신실한 결합’임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미국성공회교회는 세계성공회의의 대다수가 유지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신앙과 가르침’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상황을 더욱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저스틴 웰비 주교는 “미국성공회교회는 3년 동안 교단 간 일치와 조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며, 성공회 내부적 모임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상임위원회에 임명되거나 선출되지 못한다. 미국성공회는 세계성공회 교리나 정치에 관한 어떤 의사 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가톨릭 영성체 받은 유럽 루터교 사제들”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회동 후 받아... 마틴 루터는 가톨릭 성만찬 비판

루터교 소속 일부 단체들이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회동 이후 가톨릭의 영성체를 받았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가톨릭의 성만찬, 특히 화체설(성찬 시떡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복 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었다.

이들이 영성체를 받은 미사는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에 있었다. 주간 연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일치기도주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치에 초대하실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이 우리의 일치 목도하길 원한다. 우리 나뉘어 있지만 모든 세례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형제이자 자매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통해 우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일을 전할 의무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치기도주간에 모든 그리스도

인들이 이 같은 일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자. 다른 이들과 나누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고, 특별히 가난하고 잊힌 이들과 나누자. 우리가 받은 거룩한 자비의 선물을 스스로 나누자”고 덧붙였다.

교황은 작년 한 루터교 여성이 가톨릭 교 남성과 결혼할 때 ‘영성체’를 받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여쭙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신앙교리성’을 완성한 게르하르트 뮐러 추기경은 “이는 교황이 루터교회와의 종과 간 교류를 승인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가톨릭교회의 법규에 따르면, 영성체는 하나님께 용서 받은 가톨릭 신자들만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정교회처럼 영성체에 대해 동일한 믿음을 지닌, 가톨릭교회가 인정하는 교회의 신자들이 성찬식 참여를 요청할 경우에는 영성체를 받을 수 있다.

“필리핀 기독교인 IS에 맞서 무장 세력 형성”

남부 센트럴 민다나오 지역... 기독교인 300여 명 IS와의 대항위해 결집

분쟁 지역인 필리핀 남부 센트럴 민다나오에 약 300명의 무장 기독교인들이 모였다. 이들은 이 지역 테러리스트들을 상대할 수 있는 군인들로 훈련받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부라한’(Pulahan)이라고 부른다.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의 붉은 전사(또는 수호자)’라는 뜻이다. 이들은 IS의 깃발을 불태우기도 했다.

스스로를 아시옹 형제(Brother Asiong)이라고 밝힌 한 중년 남성 대원은 CNN 필리핀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폭력적이지 않다. 단지 우리 땅을 지키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의 대원들은 대부분 ‘방사모로 이슬람해방전선’(BIFF)에게서 땅과 가족들을 지키고자 하는 지역 농부들로 구성돼 있다. BIFF는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에서 갈라져 나온 극단주의 이슬람 과격단체다.

아시옹은 “우리는 단지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는 스스로 무장을 해야 했다. 어떤 것도 해 보지 못하고 죽기는 싫다”면서

“지하디스트들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군대가 이 지역에는 없다”고 했다.

부라한은 지난 1990년대 공산주의자들 및 모로반군단체들과 싸우기 위해 구성됐다. 이 새로운 단체의 회원들이 모두 가톨릭 교인들로 구성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필리핀은 현재 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가톨릭 국가다.

BIFF의 아부 미스리 마마흐(Abu Misry Mamah) 대변인은 이 단체의 창립 소식을 듣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CNN 필리핀과의 한 인터뷰에서 “시민들이 무장을 하고 당국이 이를 시인한다면, 이는 정부의 일부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과도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 당국은 시민들의 무장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시옹은 “우리의 관심사는 정부가 이 땅을 누구의 소유로 결정해야 하는가에 있다. 이 땅이 그들의 소유인가 아니면 우리의 소유인가? 우리는 합법적 절차를 따르길 원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中당국, 대형 삼자교회 목사 전격 교체”

십자가 철거 운동 반대 구요셉 목사... 보복성 인사교체 비판 일어

‘십자가 철거 운동 반대 성명’을 발표했던 중삼자교회 목회자가 전격 교체되어 ‘복수성 인사’라는 비판이 일자, 중국 당국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중국 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삼자위원회)는 18일 저장(浙江)성 최대 크기를 자랑하는 항저우(杭州) 총이탕(崇一堂) 교회의 담임목사를 교체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담임인 구요셉 목사 삼자위원회 부회장이 장중청 목사로 교체한다는 내용이었다.

구요셉 목사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종교건축법안’을 강행하자, 이를 반대하

는 성명을 발표했던 인물이다. 이 법안은 십자가 높이를 교회 건물의 1/10으로, 설치 장소를 분당 정면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 교체에 대해 성도들이 반발했다. 중국 당국은 “일반적인 인사 교체”라며 해명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서 “구 목사는 중국 기독교 관련 협회에서 계속해서 일을 할 것”이라 밝혔다.

현재 중국은 중국교회가 커지면 중국 공산당의 존립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교회에 여러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다.

“파리 테러범, 직접 인질 살해한 ‘핵심 IS대원’”

IS, 범행 전 영상 두 달만에 공개... '영국도 표적' 테러 위협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 국가’(IS)가 지난해 11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프랑스 파리 테러를 일으킨 IS 조직원 9명이 모두 직접 인질들의 참수 등 직접 살인을 행한 핵심 대원들로 밝혀졌다.

IS 선전 매체 ‘알하야트 미디어 센터’는 최근 ‘그들이 어디에 있던 찾아내면 죽여라’라는 제목의 17분 짜리 동영상상 IS 공식 텔레그램 채널 등에 공개했다고 세계 언론이 보도했다.

이 동영상에는 파리 테러범 9명이 차례로 등장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에 보내는 메시지”라며 인질 처형 등의 장면을 보여준다.

IS는 파리 테러 2달 반 만에 공개한 이 동영상으로 영국에 대한 테러를 암시하기도 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와 존 바커우 하원의장 사진이 총구를 겨냥하는 듯한 붉은 십자선과 겹친 이미지로 동영상 말미에 등장한다.

IS 조직원은 이들의 사진을 내보내며 “이슬람을 부정하거나 배교한 자(kufr)는 모두 우리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런던의 주요 명소도 등장한다. 이를 통해 IS가 영국 테러를 암시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IS는 이번에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 파리 테러가 IS의 지시로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 IS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고 분석했다.

프랑스와 벨기에 등 유럽 국적자들이 파리 테러를 벌이기 이전부터 IS 점령지에서 훈련을 받고 조직원으로서 잔인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O.C./얼바인 지역	
<p>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p> <p>김철민 장로</p> <p>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p>	<p>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토 6:3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NECT합창단 토 9:30AM-10:00PM 대형선교회 주일 2:00PM NEC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p> <p>김일영 담임목사</p> <p>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p>
<p>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2부) 1:30pm 금요일전날아침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다름날) 7:00am 화요일기도회 7:00pm 토요일전날예배 7:00pm</p> <p>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양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원/영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p> <p>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p>
<p>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2:3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생가주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후 2:30</p> <p>남가주 벤엘 교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p>	<p>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p> <p>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a) T.(562)691-0691/F.(562)691-0698 / nachimban.org</p>
<p>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p> <p>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lfccc.com</p>	<p>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새벽 오전 6: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p> <p>놀워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C.(714)308-7038/usa8291@gmail.com</p>
<p>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일양양예배 7:3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저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p> <p>늘푸른선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9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p>	<p>주일예배 오전 11:30 EM 주일 오전 11:30 김일권 담임목사 금요일예배 오후 8시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p> <p>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p>
<p>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종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p> <p>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c.org</p>	<p>1부예배 오전 8:45 금요일새벽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p> <p>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c.org</p>
<p>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김한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새벽 행사/바다기도회 새벽 6:00</p> <p>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p>	<p>1부예배 오전 9:00 P-lander(Korean) 오전 11:00 이동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s-위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도림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일금요일, 에프스타일 College 오후 1:00</p> <p>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p>
<p>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민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대학원부 오후 2:00 KM대학원부 오후 2:00</p> <p>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p>	<p>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양예배 오후 8:00 홍성준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원부 오후 1:30</p> <p>얼바인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니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p>
<p>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예)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0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예)</p> <p>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p>	<p>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p> <p>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p>
<p>주일예배 오전 9:00 & 11:50 김민재 담임목사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p>	<p>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영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p> <p>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p>
<p>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p>	<p>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6: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토요일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성령예배 오후 8:00 4부예배 오후 2:00</p> <p>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림봉은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p>
<p>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6:00</p> <p>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p>	<p>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목요일성령집회 :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p> <p>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p>
<p>주일 성령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일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회 :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p> <p>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 info@Pottersccc.com</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원재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8:00</p> <p>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gracechurch.org</p>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이방인의 총만 수와 온 이스라엘의 구원 (총체적 선교) II

세계 선교의 완수는 '이방인의 총만 수를 위한 선교'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선교'가 병행될 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전 세계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의 선교 수행을 제안해 본다. 본 자료는 양태철 목사(GMI(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은혜한인교회) 선교팀장) 제공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2.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선교

현대 이스라엘은 19세기 시온주의 운동을 배경으로, 1948년 5월 14일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2013년 9월 1일 통계에 의하면 8,081,000명이며, 그 중 6,066,000명은 유대인(75.1%, 이 중 430만 명(73%)은 이스라엘 출생)이고, 1,670,000명은 아랍인(20.7%, 이스라엘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주로 구예루살렘 시에서 거주)이며, 345,000명은 기타(4.2%)로 나타나 있다(<http://www.jewishvirtuallibrary.org/jsource/society>).

언어는 영어, 히브리어와 아랍어가 공식 언어로 선택되었으며, 이스라엘. 웨스트뱅크. 가자지역의 인구를 합치면, 대략 9백만에서 1천만 명 정도가 되며, 면적은 20,770 km이 된다(한국의 경상남북도보다 비슷한 면적). 즉 남북의 최대 길이는 564km(힐본 산에서 에일랏 홍해 물가까지)이며, 동서의 평균 길이는 96km(지중해변에서 요단 강가까지)가 된다. 수도는 예루살렘(히브리어로는 '예루살라임', 아랍어로는 '알 쿠즈')이며, 최대 도시는 텔아비브가 된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기 위한 대상으로서의 유대인은 전 세계에 약 1,400만 명(13,746,100명, 2012년 통계)이 산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약 600만 명 정도(6,066,000명)가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전체 유대인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0.2%(0.196%)에 이르며, 이들 가운데 개신교인들은 약 30만 명(이들 중 약 20,000명은 이스라엘에서 150여 개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http://jewishisrael.ning.com/page/statistics-1>, 2013.10.29. Charisma Magazine)). 이들은 전체

유대인의 약 2.2%(2,183%)가 된다. 수적으로는 미미할 수 있으나, 주님 재림의 필요 및 충분조건 중의 한 부분이기때문에, 우리는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여호와와의 생기를 받아 살아난 것(겔 37:1-14)처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전 세계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도록, 모든 크리스천들은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

GMI 이스라엘 선교는 러시아 모스크바 은혜신학교 9기 졸업생(1999년 졸업)이 이스라엘 하이파 지역에서 선교적 목회를 감당하고 있으며, 그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은혜 러시아교회에 의한 이스라엘 내 '사랑의 불꽃'을 8기까지 진행하였으며, 2013년에 3층 자체건물을 구입하여, 신학교를 준비중에 있다. 또한 이스라엘 내 가정교회는 4곳으로서 북쪽 갈릴산 지역의 하이파(Haifa), 나사렛 근처의 아풀라(Afula), 텔아비브 근처의 네탄야(Netanya), 남쪽 가자 국경선 근처의 아시켈론(Ashkelon)에 위치하고 있다.

1897년 테오도르 헤르젤(Teodor Herzl)로부터 시작된 시오니즘(Zionism)의 영향으로, 현대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또한 1980년 당시 대통령인 벤구리온이 100만 명이 살 땅을 만들자고 외치며, '알리아' 운동을 시작함으로써, 지금은 170만 명 이상이 구소련과 유럽 및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였다. 마태복음 24장 32절의 비유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알리아'라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

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 온 이후부터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월절, 장막절, 그리고 초막절마다 모였었다. 이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말을 '알리아'라고 하였는데, 이 '알리아'라는 말은 "그 땅으로 올라가라"라는 뜻으로서, 오늘날의 '알리아'라는 말은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밖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리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제일 많이 하였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3장 5-6절로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겔 37:5)가 된다.

이스라엘 선교전략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약 600만 명(1948년 이스라엘 독립 후 정착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1980년대 이후의 '알리아' 운동으로 이스라엘에 정착한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을 향한 선교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아랍인들(약 167만 명)을 향한 선교와,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는 약 5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인(가자지역; 180만 명, 웨스트뱅크 지역; 210만 명, 골란고원 지역; 10만 명, 기타 이스라엘 내; 100만 명)에 대한 선교를 해야 함을 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해외에 산재한 약 770만여 명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전체 유대인 1,375만 여 명 중,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607만 여 명을 제외한 숫자)을 향한 선교와, 이들 해외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통한 이스라엘 선교를 해야 한다.

따라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은 종합적인 선교(총체적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전 세계 모든 교회, 모든 디아스포라 교회,

모든 선교회의 선교가 그 일익(一翼)을 감당하길 제안한다.

◆나가는 말

총체적(總體的) 선교의 의미로는 ①복음주의(evangelical) 선교신학과 에큐메니칼(ecumenical) 선교신학의 종합적인 의미, ②직접선교와 간접선교의 종합적인 선교, ③전인적, 통전적, 성육신적 의미의 선교, ④'이방인의 총만 수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종합적 선교, ⑤양방향(구심적 선교, centripetal mission & 원심적 선교, centrifugal mission)적인 선교 등으로 볼 수 있다.

①번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복음주의(evangelical)는 개인적인 구원의 체함과 영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교 현장에서 사회 참여, 혹은 타종교와의 대화보다는 교회 설립과 복음화(개인 구원화) 및 제자화를 강조하였다. 반면에 에큐메니칼(ecumenical, 연합과 일치)주의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선교라고 생각하기에, 개인구원보다는 사회구원을 중점으로 하여, '인간화'를 선교의 정의 및 목표로 간주하였다. 즉, 광의적 복음의 개념에서, '인간화'(humanization) 개념과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개념을 포함함으로써 말미암아,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영혼의 구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구조적 모순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두 진영의 개념을 합하여, 영혼구원과 함께, 인간이 사는 사회의 발전(사회 구원적인 개념이라고 보다는 발전적인 개념)을 합하는 종합적인 선교를 총체적인 선교로 볼 수 있다.

②번의 개념은 ①번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써, 선교지에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사역과 간접적으로 전하는 사역(선교지 여건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창의적 접근지역 등의 경우)이 함께 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③번의 개념은 실제적 선교의 의미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현지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유도하며, 토착화('자립', '자치', '자전'을 위한 localization, indigenusness)를 이룰 수 있도록, 선교사의 성육신적인 삶을 통한 선교, 즉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통한 선교를 의미한다.

④번의 개념은 선교의 대상 및 선

교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이방인의 총만 수'를 이루기 위한 선교(미전도 종족 선교: World A 선교, 비기독교인 선교: World B 선교, 명목상의 기독교인 선교: World C 선교)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선교가 종합적 및 총체적으로 이루어져 함을 의미한다.

⑤번의 개념은 선교지를 향한 선교(구심적 선교)와 선교지에서 우리 주위에 와 있는 불신자 이웃들을 향한 전도와 선교(원심적 선교, 'Here and Now 선교')를, 상기의 ①번부터 ④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종합적 및 총체적으로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때,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church)와 교회를 돕는 기관(para-church)이 협력하여, 총체적 선교로서 주님의 지상명령(마 28:19-20)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명확하게 표현된 '아버지의 꿈'이자, 독생자를 성육신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아버지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원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이방인의 총만 수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생명을 다 하여 사명을, 총체적인 선교의 관점과 전략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스위스의 세계적인 조직 신학자이자 선교학자인 에밀 브루너(Emil Bruner)가 말한 "불꽃은 타오르기 위하여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를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고백이, 모든 교회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이러한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전 세계 모든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되길 제안한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들의 최고와 최종의 꿈이 되길 제안하며,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아멘! <끝>



양태철 목사 GMI(은혜한인교회) 선교팀장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겨울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5년 겨울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 1.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 2. 신학 대학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 3. 일반 대학교
 -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 4. 홈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홈스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 * 이번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5년 9월 21일(월) ~ 11월 27일
 겨울학기 개강일 : 2015년 12월 07일(월) ~ 2월 12일
 봄 학기 개강일 : 2016년 2월 15일(월) ~ 4월 22일
 여름학기 개강일 : 2016년 5월 16일(월) ~ 7월 22일

겨울학기 등록 안내 : 2015년 12월 7일 까지 등록 마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TEL : 213 705 7778
www.GreenMWild.com . GreenMWild@Gmail.com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 C554e Colour B&W 55/55 ppm
- C454e Colour B&W 45/45 ppm
- C364e Colour B&W 36/36 ppm
- C284e Colour B&W 28/28 ppm
- C224e Colour B&W 22/22 ppm
- Dual Scan ADF 160opm Duplex
- Dual Scan ADF 80opm Simplex
- Emperor Drive!
- USB Print
- Colour Internet Fax
- Mobile Support



Simitri with Bizness *Optional : Fax & Finisher

●이슬람 바로 알기

꾸란 속에 나타난 기독교의 영향들

이슬람이 시작될 때,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종교는 유대교와 조르아스터교(Zoroastrianism), 그리고 사비교와 토속종교였다. 기독교는 아랍인들 사이에서 크게 인식된 종교는 아니었다. 무함마드가 보고 들었던 기독교는 그에게 좋은 인상으로 남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라비아 반도는 비잔틴 기독교 제국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다양한 이단들의 도피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무함마드는 기독교 이단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무함마드는 출처 불명의 많은 문서들과 이교도의 시각에서 기록된 많은 신화들을 접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정통 기독교라고 생각했다.

1.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꾸란 9장 28절에서 “아론의 누이여! 너의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네 어머니도 부정한 여자가 아니었느니라” 무함마드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모세와 아론의 누이인 미리암이라고 알고 있었다.

따라서 꾸란에 마리아는 이므람(Imram)의 딸로 묘사되어 있다(꾸란 19:30). 이므람은 아르람(Amram)의 아랍식 표현이고, 구약성경에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의 아버지”(민 26:59)다. “아론의 자매”는 미리암을 부를 때(출 15:20) 사용되는 것이다. 꾸란(3:35-36)에 이므람의 아내가 마리아를 낳은 후에 마리아를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넘겨 주었고, 세레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Zacharias)가 마리아를 지성소에 두었고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천사가 매일 마리아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이슬람에서 마리아의 어머니 이름을 한나라고 한다.

사가랴가 마리아의 보호자가 되어 성전에서 키웠다가, 마리아의 어머니가 한나라는 것이다. 마리아가 야자수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을 낳았다(꾸란 19:21-26)는 이야기는, 위경(偽經, Pseudepigrapha)인 “야고보복음”(Protevangelium of James)에 나오는 이야기들이다.

2.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

꾸란(꾸란 3:46)에 의하면, 예

수가 아기 때에 요람에서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계시가 임한다. 실제로 꾸란 19장 30절부터 요람에 있는 예수가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아랍어로 번역되어 있었던 『시리아어로 기록된 예수의 유아기 복음서』(The Syriac Infancy Gospel, Injilu 't Tufuliyyah)의 첫 번째 장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꾸란에 예수가 유년기 때 진흙으로 참새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꾸란 3:49). 이 내용은 외경인 『도마가 쓴 예수의 유년기 복음서』(Thomas Gospel Of The Infancy Of Jesus Christ)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다. 꾸란에는 어린 예수가 행한 기적 가운데 진흙으로 새를 만드는 장면이 두 번 나온다(꾸란 3:49; 5:110). 꾸란이 한 마리의 참새만을 언급하는 것이나, 참새가 예수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숨을 불어 넣어서 날아간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무함마드는 『도마가 쓴 예수의 유년기 복음서』를 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무함마드가 신약성경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는 첫 번째 이적을 신약성경(요 2:11)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고, 30세 전후에 세례를 받기 이전까지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하늘에서 내려온 식탁 이야기

꾸란 5장을 마이다 장(Ai-Maidah)이라고 부른다. 이 장의 명칭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하늘에서 식탁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즉 아랍어 “마이다”는 음식을 차린 식탁을 의미한다. 꾸란 5장 115~117절에 의하면, 예수는 하나님께 “음식이 마련된 식탁을 내려 달라”고 기도하고 실제로 음식이 잘 차려진 식탁이 하늘에서 내려 온다. 이 구절에 영감을 준 내용은 누가복음 20장 30절이며, 여기에서 예수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고 말했다. 그리고 식탁이 하늘에서 내려 왔다는 내용은 사도행전 10장 9-16절에서 베드로가 본 환상에서 영감을 얻었을 것이다. 신약성경에 대하여 읽어 보았거나 들어 본 사람이라면 베드로의 환상을 성찬식과 혼동할 수가 없다. 예수가 살아 있는 동안



유혜석 선교사
FIM국제선교회 대표

천국에서 음식이 담긴 식탁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로 착각할 수가 없다. 이 본문은 서로 혼합된 것임을 보여 준다.

4.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부정

꾸란(꾸란 4:157)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부정한다. 예수는 죽지 않고 승천했을 뿐이다(꾸란 3:55). 또한 예수는 반드시 모든 인간들처럼 죽어야만 한다(꾸란 19:33). 따라서 예수는 죽기 위하여 재림할 것이며, 이후 40년 동안 살면서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모두 이슬람을 믿게 할 것이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한다. 왜 예수가 재림하여 반드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위경에서 찾을 수 있다. 『성스러운 목수 요셉의 죽음』(The Decease of our holy Father the old man Joseph the Carpenter)에서 아랍어로 쓰인 책 31장에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늘로 올라간 예녹과 엘리야가 세상에 내려와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콥트 문헌인 『잠든 마리아의 역사』(The History of the Falling Asleep of Mary)라는 책에서 이 구절을 찾을 수 있는데, “이들(예녹과 엘리야)은 죽음을 맞보기 위하여 다시 땅에 내려와야 한다”고 돼 있다. 꾸란에는 두 번(꾸란 3:185, 29:57)이나 “모든 영혼은 죽음을 맞보아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5. 무함마드가 올 것이라는 예수의 예언

꾸란 61장 6절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난 후에 아흐만이 올 것을 기대하라고 예언한다. 아랍어로 ‘아흐만’(Ahmad)은 무함마드와 어원적으로 같다. 그 둘 모두 “칭송을 받을 자”라는 뜻이다. 또한 아흐만을 고유명사로 간주하여, 당연히 그를 무함마드와 동일시하고 있다. 그래서 무

슬림들은 예수가 보혜사가 온다고 선언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무함마드가 오는 것으로 선언하였다고 이해했다. 성경에 나온 보혜사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parakletos)의 ‘상담가’라는 뜻에서 왔다. 이 단어를 “페리클리토스”(periklytos)라고 읽으면, 아랍어 ‘아흐만’(Ahmad)과 비슷한 의미다. 이는 헬라어의 “유명한” 혹은 “명성 있는”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예수는 ‘아흐만’(Ahmad)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내용은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며 이미 성취되었다(행 2:1-11). 그러나 무슬림 학자들은 원래는 페리클리토스(periklytos)였는데, 기독교인들이 이 단어를 파라클레토스(parakletos)로 바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약성경 어디에도 페리클리토스(periklytos)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5장 26절, 16장 7절도 모두 파라클레토스(parakletos)이다.

6. 저울

꾸란의 여러 군데에서 심판의 날에 선행과 악행을 비교하는 저울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꾸란 7:8-9; 21:47; 42:17; 101:6-9). 심판 날에 저울에 달아 보는 이슬람의 개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이 내용은 위경인 ‘아브라함의 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문헌은 이집트에서 기록된 것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저자가 2세기 혹은 3세기에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사람의 선행과 악행을 저울질한다는 개념은 원래 고대 이집트에서 가지고 있었다. B.C. 2500년경의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된 삽화인 사자의 서(Book of Dead)의 “심판 장면”에 저울이 등장하고 있다.

심판 날 왕좌에는 “선한 존재”인 오시리스(Osiris)가 재판관처럼 앉아서 저울의 결과를 기록한 토트신(Thoth)의 두루마리에 따라 죽은 자의 영혼을 다룰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삽화와 아브라함 성서와 꾸란에서 보았던 내용을 비교하면, “저울”에 관한 내용이 이집트 지역에서 구전으로 전해 오던 고대 이집트 신화로부터 가져온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브라함 성서”에 기록된 콥트교인들의 생각을 통해 무함마드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밤하늘의 여행

꾸란 17장 1절을 보면 무함마드가 천국을 다녀 왔다는 내용을 읽을 수 있다. 무함마드가 7층천 여행 중에 가장 낮은 천국에 들어가서 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천사 가브리엘과 함께 밤에 메카에서 (노새보다 작고 당나귀보다 크며 하얀색으로서 날개가 달린) 부라끄(Buraq)라는 동물을 타고 시내산을 거쳐서 예루살렘의 알끄사 사원(Ai-Aqsa Mosque)까지 날아갔으며, 그곳에서 천사 가브리엘의 도움으로 7층천을 다니면서 각층에서 서로 다른 선지자들을 만났다. 세레 요한과 예수는 두 번째 하늘에, 아브라함은 가장 높은 일곱 번째 하늘에 있었다. 여러 선지자를 만나고 다시 그날 밤에 메카로 돌아 왔다는 것을 밤하늘의 여행(Miraj)이라고 부른다. 이 밤하늘의 여행은 “아브라함 성서”라는 위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8. 그 외에 신약에서 빌려 온 내용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무함마드는 꾸란의 많은 내용을 성경의 정경이 아닌 위경과 위경에서 차용하였다.

그렇다면 무함마드가 신약성경의 정경을 인용한 것은 없을까? 꾸란 7장 40절 “우리(알라)의 말씀을 거역하며 오만하고 거만한 자 그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비늘 구멍을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는 누가복음 18장 25절을 옮겨 놓은 것이다. “낙타가 비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굉장히 비슷한 구절들이 마태복음 19장 24절과 마가복음 10장 25절에도 기록되어 있다.

또한 꾸란 75장 22절과 23절에 “그날 일부는 그들의 얼굴에 빛을 발산하며 그들의 주님을 향하고 있고” 이 내용은 신약성경에서 하나님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나타내는 요한1서 3장 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떠올리게 한다. 이 구절들은 무함마드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이 꾸란과 이슬람에 미친 영향력은 미미하나, 대신 위경과 위경, 그리고 기독교 이단들의 교리가 꾸란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복사기 무료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fbmcopiers.com

기·독·일·보와 함께 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비밀의 정원

주현철 · 김경덕 | 소원나무 | 268쪽

극동방송 라디오 청소년 고민상담 코너 사연들을 담았다. 청소년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저자는 교회와 학교에서 각각 청소년들과 함께해 왔다. (이성)친구와 성(性), 공부와 진로, 외모와 성격, 가족과 친척, 교회와 종교, 이단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구체적 생각을 알 수 있다. 책 제목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컬러링북과 같지만,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에서 따온 것이다.



유대인의 밤상머리 자녀교육법

이대희 | 베이직북스 | 272쪽

자녀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한국형 밤상머리 자녀교육'을 유대인들의 사례로 제시한다. 유대인들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감사의 기도로 식사를 시작하고, 절대 밤상에서는 아이를 혼내지 않는다. 밤상머리에서 나누는 대화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핵가족화와 주5일제, 입시경쟁 과열로 가정교육이 갈수록 시들해지는 가운데, 회복의 첫걸음은 '대화'임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생애

필립 멜란히톤 등 | 새물결플러스 | 175쪽

1521년 출판된 루터회 최초 목판화 소책자에서 찾는 한국교회 해법. 당시 교황 제도의 부패성과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16세기 루터 신학의 정수를 시각화된 자료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 속 그림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둔 지금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준다. 성경 구절과 그림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의 고난,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다.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

스콧 라이트 | 아르테 | 336쪽

남미 엘살바도르 가톨릭교회의 대주교로, 엘살바도르 군사 독재정권이 민주화 운동을 살인으로 탄압하자 비폭력 투쟁으로 저항했던 인물의 평전. 그는 현지에서 '나사렛 예수'에 비견되고 있다고 한다. 독재정권에는 '불의한 명령이 아닌 양심에 따르시오'라고,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역사가 요구하는 생명을 건 모험을 피하지 말자'고 호소하다 1980년 3월 24일 정권에 암살당했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싸워야 하는 삶으로부터의 해방!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우리는 삶이 끝난 후에도 자아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 하리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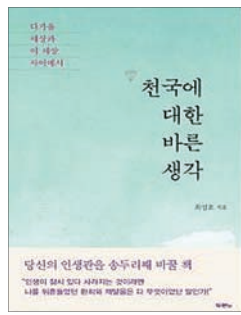
만약 우리의 인생이 잠시 공중을 떠다니다가 어느 순간 터지면서 사라져 버리는 비눗방울 같은 것이라면 그 동안 나를 뒤흔들었던 기쁨과 슬픔, 의문과 깨달음, 고뇌와 환희, 보람과 허무, 반가움과 그리움, 소망과 절망은 다 무엇이 었다는 말인가?

역울한 자나 역울하게 만든 자나 모두 똑같이 무(無)로 회귀된

다면, 이 땅에서 진지하고 선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연장이다. 전 세계적으로 입사체험의 사례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죽음의 기로에 놓였던 사람들이 깨어나 '천국에 다녀왔다'고 고백하는 사건이다.

《천국에 대한 바른 생각》의 저자 최성호 목사는 신학자이자 의사로서 이들의 간증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에서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만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천국에 대한 바른 생각 최성호 두란노 | 324쪽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최성호 목사가 말하는 천국은 멀리 떨어진 모호한 세계

가 아니다. '과연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집에 살며 무엇을 먹을 것인가'와 같이 증명되지 않은 진부한 소개도 아니다. 오히려 의학적, 신학적으로 균형감 있게 접근하면서 '반드시 올 천국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천국에 대한 바른 생각》은 성경을 기초로 천국에서 펼쳐질 삶을 스케치해 봄으로써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삶의 가치관과 신앙의 방향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재정립하도록 돕는다.

이 책은 삶을 끝내지 않는다면 완전한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 그리스도의 부활이 몰고 온 변화들

을 다룬 1부 삶 이후의 삶, 싸워야 하는 삶으로부터의 해방을 다룬 2부 나는 천국이 알고 싶다, 그리고 태도의 대전환, 예배, 기도, 전도, 섬김, 하나님 나라의 적, 이 땅과 세상에 대한 책임을 다룬 3부 찬란한 내일이 오늘에게 요구하는 것 등으로 나누어 실고 있다.

입사체험,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처리해 입사체험에 대한 독자들의 간접경험을 돕고 있다.

저자 최성호 목사는 외과 전문의로 한국기독교선임교회에서 활동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출신으로 현재는 구리시 예평교회 담임목사다. 이영인 기자

“기독일보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총만한 교회



한기형 담임목사

주일예배1부 오전 8:0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기독일보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예수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 시키는 교회
소그룹의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
2세를 책임지는 교회
선교에 힘쓰는 교회

“기독일보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남가주 여성목사회



김헬렌 목사 (수석 부회장)

강지원 목사(회장)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roc.com

“과학과 신앙의 충돌 속 신자들의 신앙고백”

‘아담의 역사성’에 대한 복음주의의 4가지 견해 논쟁

서로 의견이나 관점이 다를 때, 곧 야군 아니면 적군으로 간주해 버리는 듯한 모습들이 있다. 서로의 의견을 차분히 듣고 이해하며 행하는 토론이 아니라, 선입견으로 상대를 공격하고 적대시하여 심한 경우에는 인신공격과 비난이 난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이 책은 가깝없는 다양한 견해를 통해 건강한 논쟁을 가감하게 하고 있다.

책 소개에서 나오듯, 이 책은 ‘아담의 역사성’에 대한 복음주의의 4가지 견해인 진화적 창조론, 원형적 창조론, 오래된 지구 창조론, 젊은 지구 창조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을 각 챕터에 실고 있다.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학자들의 반론, 그에 대한 발제자의 재반론을 담고 있다.

아담의 역사성을 주제로 하지만 그 기저에는 창조와 진화의 문제가 담겨 있다. 그 속에서 아담의 역사성을 부인하거나 원형으로 하는 비 역사성을 담아내는 이들과, 아담의 역사적 존재를 주장하는 이들로 나뉜다.

‘아담의 비역사성’ 부류에 속하는 이들은 진화를 주장하거나 허용한다. 또 아담의 역사성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창조를 이야기하지만, 문자 그대로의 창조와 간격 이론을 바탕으로 한 오래된 지구 창조론으로 구분된다.

◆진화적 창조론

이 주장을 소개하는 라무위는 진화에 대한 주장을 하면서, 역사적 아담은 부인하지만 아담으로 묘사될 수 있는 무리들에게서 인간이 기원한다고 주장한다. 라무위는 성경과 과학을 일치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고대의 잘못된 과학적 사실이 성경에 반영되어 있기에, 그것을 과학과 일치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훼손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원형적 창조론

월튼은 라무위와 달리 아담을 역사적 인물로 본다. 그러나 이것이 생물학적 아담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역사적 아담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보다는 원형으로서의 아담을 이야기한다. 즉 아담이 최초의 인물이나 그 조상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래된 지구 창조론

폴린스는 젊은 지구 창조론을 이



아담의 역사성 논쟁
데니스 O. 라무위 외
새물결플러스 | 434쪽

야기하는 배릭과 더불어 창조를 이야기하지만, 문자적 6일의 창조를 인정하기보다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한다.

◆젊은 지구 창조론

배릭은 창세기에 나온 대로, 6일 동안 세상이 창조됐고 아담이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믿는다.

이 책의 학자들은 이러한 견해를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는 맹목적 창조과학적 견해로 규정하고 배릭에 대해서도 그런 면을 이야기하지만, 배릭은 사실 과학적 주장 자체를 하지 않는다. 자신의 논리를 신학적으로만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 그를 과학일치주의자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론한다.

이 책은 제목만 보면 그저 진화와 창조에 대한 과학자와 보수 신학자 간의 논쟁이라고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다른 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한다.

아담의 역사성에 대해 이 네 명의 학자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네 명은 한 믿음을 가진 ‘야군’임을 알 수 있다.

이 학자들 중 라무위만 하더라도 진화를 이야기하고 아담의 역사성을 부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고백을 분명히 한다.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무오성도 믿는 듯하다. 단지 성경에 대한 무오성의 정의와 그 범위, 세밀성이 다른 듯하다.

그러기에 이런 한계성은 본질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듯하면서도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기도 한다. 또 성경과 과학의 관계 또는 우

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의견 차이가 발생한다.

이런 상당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라는 테두리가 중요한 것은, 무신론적 진화론자나 신앙과 과학을 이원화하는 학자들과 차별성을 가지며, 적군이라기보다 근원적으로 야군의 테두리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이 네 학자는 서로에 대한 의견 충돌과 견해 차이는 갖고 있지만, 자신의 신앙고백을 하고 있다.

그 중 진화적 창조론을 주장하는 라무위는 젊은 지구 창조론자로서, 연구하고 학문과 신학을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진화적 창조론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을 갖게 된 자신의 신앙 여정을 고백하는 진솔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이원론적 신앙이나 포기와는 다르다.

사실 한국 교계에서는 젊은 지구 창조론이나 조금 폭넓으면 오래된 지구 창조론까지만 복음주의로 규정하는 성향이 있다. 오래된 지구 창조론에 대해서도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는 듯한 분위기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한국 교계만의 독특성을 담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맹목적으로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것도 건강한 토론 문화는 아닐 듯싶다. 어느 쪽을 주장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대속에 대한 부인이나 왜곡이 아니라면 상대적 또는 절대적으로 비본질적이라 말할 수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복음에 대해 타협적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듯싶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주장들에서 어느 하나를 절대화시키는 위험을 피해야 한다. 종종 과학적 관점으로만 보는 시각은 성경의 기적성을 무조건 부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신앙적 관점을 무조건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섭리보다 나의 독선이 앞설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즉 신앙과 과학을 일치시키거나 무조건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이슈에 대해서는 강렬한 논쟁을 행한다는 점에서 논쟁의 모범을 보여 준다. 이 책은 결코 만만한 책은 아니며 굳이 모든 사람이 다 읽을 만한 책도 아닐지 모르지만, 본인이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거나 과학과 신앙에 대해 고민한 이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읽어 보아야 한다.

문양호 목사
크리스천북스 편집위원

“영적 문맹 상태의 신자들을 위한”

오스 기니스의 ‘예언자적 메시지’



선지자적 반시대성
오스 기니스 | 김형원 옮김
이레서원 | 192쪽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최고의 덕목은 무엇인가? 저자는 C. S. 루이스의 용어를 빌려 그것이 ‘저항적 사고’라고 말한다.

루이스가 말한 ‘저항적 사고’란 복음의 ‘적합성’을 추구하는 것과, ‘현세대와 잘 맞지 않는 기독교 메시지’의 요소들에 대한 집요한 인식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현대 세계의 세력은 우리의 독립적 사고를 가로막고 순결한 삶을 방해한다(106쪽).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타인 지시의 사회’가 된 것이다. 즉 우리의 견해와 윤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함으로써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세속적인 삶의 무게는 만만치 않다. 그 소음과 속도도 그렇다. 능력과 현실성, 그리고 이익을 절대 가치로 여기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그 좌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저자는 우선 몇 가지 처방전을 제시한다.

첫째, 이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둘째, 큰 이익과 시대의 풍조를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셋째, 위협적인 불화 앞에서 의인애가 요청된다. 넷째, 역사와 그 역사 안에서 자신의 나라가 처한 데서 비롯된 감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한다. 끝으로, 초월적 원천에서 나오는 메시지에 담겨진 권위적 어조가 요청된다.

우리는 어긋난 세상 가운데 있다. 따라서 ‘부적응’을 낫게 할 여지가 말아야 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의 사회와 교회에 잘 맞지 않는다고 저자는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본회퍼가 말했듯, ‘제자도의 대가’를 치를 준비가 필요하다.

저자 오스 기니스는 최고의 기독 지성답게 문·사·철을 넘나들며 그의 생각을 펼쳤다.

신국원 교수는 이 책의 추천의 글을 통해 “니체와 C. S. 루이스를 훤히 넘나드는 오스 기니스의 통찰에 그저 감탄할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송광택 목사
크리스천북뉴스 편집위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독교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히브리어 · 헬라어

원문 번역 성경 (신약)

번역 · 주석 **고영민**
(前 백석문화대 총장)

기독교출판문화상
최우수상 수상!

히브리어·헬라어 성경 원문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번역, 전통적인 해석 원리에 의해 성경적으로 주석한 하나님의 말씀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

한국 선교 130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놓은 **聖經 翻譯의 決定版!**

새 시대, 현대 신앙인을 위해 누구든지 쉽게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체계적인 기획 하에 출간된 **劃期的 力作!**

한국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갈 **성경 주석의 源泉의 寶庫!**

●본서의 12가지 특징●

1. 전통적, 성경적 해석 원리에 의한 주석
2. 성경 해석의 기본 체계를 삼위일체식으로 강해
3. 원문을 축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 수용 언어로 알기 쉽게 전달
4. 신학의 학문성과 주석의 창조성을 최대한으로 높임

5.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성경적으로 평가, 결론 내림
6. 구속사의 맥을 따라 원어와 문장 등을 명확하게 설명
7. 성경 시대의 배경들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인용
8. 성경의 기본 자료인 고대 사본들을 세밀하게 비교, 대조

9. 성경 지리와 고고학, 문화, 풍습 등을 현장 답사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
10. 원어와 동의어, 반대어, 동음이의어를 상세히 기술
11. 성경 본문을 성경연구와 설교준비를 위해 내용별로 분해
12. 43개 번역본들을 통해 성경의 다양한 번역 가능성을 제시

목회자, 신학생, 성경연구자! 평신도 필독서!

고영민 번역 주석 | 박종규(원간목회) 기획 2,106면
이행규(문란출판사) 발행 값 59,000원

www.qumran.co.kr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6 Tel. 02-747-1004

문란출판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슈팅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주님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참가하시는 사역과 사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 제책, 연속물인쇄 전문
junimedia.com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발매음

1. 전도용품 세일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실교시디발매음

전도대상자 또는 방문자에게 교회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 1,000set(\$180) 고급양공 실교시디 1set에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용서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에 구비되어 있으나 불사역으로 발송하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발송처에 따라 달라지는 발송료 및 포장비용을 누락하지 않습니다.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툰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미용인도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항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Special Price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작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에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골든씰

Golden Seal

천연연못생제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격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만성두통, 요통

치아미백 3차례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Worship Nights with Jon Thurlow' took place at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located in Fullerton, CA.

Hundreds of Korean Americans Gather at 'Worship Nights with Jon Thurlow'

BY RACHAEL LEE

IHOP worship leader Jon Thurlow joined hundreds of mostly Korean American college students and young adults in worship during the recent event, 'Worship Nights with Jon Thurlow,' hosted at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MI), one of the largest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This two-night event, which took place on January 22-23, consisted mostly of worship music and brief messages from Jon Thurlow and his wife, Kinsey, both of whom are on the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Kansas City (IHOPKC) staff.

The first night saw some 700 attendees, while about 500 attended the second night.

"We had one main focus for these worship nights," said Paul Kim, the creative director of GMI's college ministry and the main coordinator behind the event. "And that is simply encounter. With a name as big as 'Jon Thurlow,' we

knew some people might be coming to hear his songs, meet him, or simply come because his name is well known. We prayed as a staff that people would come for encounter rather than concert."

"And I believe with all my heart that people really did encounter God this past weekend! We wanted to make the night about Jesus and not about man," Kim added.

One aspect that Jon Thurlow emphasized on Friday night was that he felt he needed "to return to his first love." And that return to his first love, Thurlow said, involves many facets -- the Word, prayer, fasting, and pulling away from distractions and "things that have the potential to dull our spirits," to name a few.

Meditating on the Word informs and affects the way he lives his life; prayer allows him to open up his heart to the Lord and praying in tongue in particular edifies his spiritual man; and fasting makes his heart more "tender" to the Lord, Thurlow said.

"When I look back at the seasons when I fasted, there was a heightened tenderness to the things of God," he explained. "A heightened sharpness to the Word and the Holy Spirit."

In contrast, many things in life take him away from the things of God, he said.

"These days, I feel like I'm always checking Facebook, and then I'm checking the news, and then I'm checking the weather, and then Facebook again, and then the weather again," Thurlow said as the audience laughed. "I need to pull back and dial down on what's going on in the inside."

He added that there's a place for social media, the news, and the other things that ask for our attention, but "we need to ask, 'Where are those things on our priority scale?'"

Meanwhile, GMI has hosted several events in the past with IHOPKC, including a Onethigh regional conference in 2009, and the Purple Pig Tour in 2010.

Symposium to Address How to Reach the Religious 'Dones and Nones'

BY RACHAEL LEE

A recent survey of the religious landscape of the U.S. by Pew Research Center showed a decrease in the number of those who identify themselves as Christians (a decrease of 7.8 percent), while those who do not affiliate themselves with any religion -- religious "nones" -- saw an increase of 6.7 percent.

In response, a group of Christian leaders of diverse backgrounds -- ethnically, denominationally, etc. -- will be coming together in February at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Asian American Christianity (ISAAC)'s 7th Symposium to discuss what factors may be coming into play in this day and age that results in such a phenomenon.

The symposium, called, 'Christianity Next: Dones and Nones?' will feature an opening address by Richard J. Mouw, the president emeritus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nd a panel discussion with various speakers including Kay Higuera Smith, a New Testament scholar of Azusa Pacific University; Steve Choi, the lead pastor of Crossway Community Church; and Edwin David Aponte, the executive director of Louisville Institute; among others.

"The Pew study hands us a missiological question," said Dr. Young Lee Hertig, the executive director of ISAAC. "How do we translate the gospel to the millennial generation, who face very different circumstances demographically, culturally, and economically?"

"In my generation, the church spoke to our need, and against the lies of racism," said Elder Oscar Owens of West Angeles Church

of God in Christ. Owens is also the co-chair for the upcoming symposium. "You're a child of God, God has a purpose for you." These are the things that they spoke to us through the gospel. So for this generation, how do we get in touch with the liberating forces in the gospel that is for everybody?"

"What internal structural barriers impede churches from adapting to shifting religious demographics? What cultural and sociological forces do Christian churches generally remain oblivious to? What are the barriers blocking intergenerational, racial, sexual, denominational dialogue?" These are among some of the other questions organizers hope to address during the symposium.

According to Hertig, a lack of a space to dialogue about such issues may be one of the reasons that some may be compelled to leave the church or shy away from it.

"Genuine dialogue is saying, 'I'm willing to be impacted by this dialogue, and I'm willing to put myself in your shoes,'" Hertig explained. "This is what millennials are craving for."

"At this symposium, we want millennials, pastors, ministry leaders, anyone who is interested, to come. We want to hear from them and dialogue together," said Hertig. "We want to create an intersectional space, a dialogue across generations, races, and genders."

The symposium will be taking place on February 27 from 9 AM to 4 PM at Young Nak Celebration Church's Jefferson Campus.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eventbee.com/v/isaacweb/event?eid=119932851.

Milal Mission Gives Over \$148,000 to 94 Students with Disabilities

BY JUNHYEONG KIM
TRANSLATED BY RACHAEL LEE

Milal Mission of Southern California selected and gave \$148,400 worth of scholarships to 94 students this year. Since 2001, the non-profit has given \$1,958,400 in scholarships.

Milal hosted a fundraising night late last year with the Korean singer Bada, during which \$206,594.75 was raised through attendance fees and donations.

From the funds, \$56,507.02 was used to cover expenses to put together the event and for advertising fees, which left \$150,087.73. \$148,400 of the leftover funds was used to give scholarships to students this month.

Along with 14 full-time college students who received \$3,600 each, the 'Ggoom-Na-Moo Scholarship' was given to 28 students, the 'Edison Grant' was given to five students, the 'J&J Grant' was given to two students, and the

'James Worldwide, Inc. Grant' was given to five students, all of whom were given \$1,000 each. Internship scholarships of \$3,600 each were also given to five students. Students overseas, including 10 in South Korea, and 10 in countries such as the Philippines and West Sahara received scholarships of \$1,000 each.

All scholarship recipients have disabilities, such as autism, cerebral palsy, visual and/or hearing impairments, intellectual dis-

abilities, quadriplegia, hypochondriac dwarfism, Kabuki syndrome, and Jacobsen syndrome, among others. Students from New York Universit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zusa Pacific University, Biola University, the Peabody Institute of John Hopkins University, California State University of Long Beach,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Orange Coast College, and Oakton Community College, were among those who received scholarships, along

with students in various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The awards ceremony for the scholarships took place on January 24 at Thanksgiving Church in Buena Park. Some 170 people attended the ceremony.

"This is particularly meaningful because these scholarships were brought about by all of your service and love, even in the midst of difficult circumstances," said a Milal Mission representative. "All of this is God's grace."

Christianity Daily's 12th Anniversary Celebrated Inter-Generationally

BY RACHAEL LEE

Christianity Daily celebrated its 12th anniversary, and the English edition's 2nd anniversary, on Friday with a commemoration and dedication service at a hotel in Los Angeles with some 100 Korean American pastors and leaders in the greater Los Angeles community.

Over the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on January 23, 2004, Christianity Daily has continued its growth through various initiatives such as opening new branches throughout the nation, by broadcasting the news through Radio Korea, and starting the English edition in 2010, said CEO John Lee. Many of those who were invited to share congratulatory remarks or a word of encouragement emphasized the newspaper's English edition as a significant aspect that differentiates it from other Korean Christian newspapers in the community.

"This publication is an important part of our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has been used by God to inform, instruct, encourage, and empower so many people including myself," said Dr. Benjamin

Shin of Biola University's Talbot School of Theology.

Rev. Michael Lee said having such a newspaper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quite rare," and makes the resource all the more valuable.

"What Christianity Daily is doing is so beneficial and helping so many people," Lee said.

Rev. John I. Moon, senior pastor of Hanwoory Presbyterian Church, lauded the fact that Christianity Daily "has the vision to build up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through the English publication.

Rev. John S. Min, the president of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Rev. Amos Park, the lead pastor of All Nations Church - Inland Campus, and Rev. Jung Myung Song, the president of World Mission University, were also among those who gave remarks during the event -- a line up which included two 'first generation' speakers, two '1.5 generation' speakers, and two 'second generation' speakers. Rev. Yu Chul Chin, the senior pastor of LA Full Gospel Church, preached during the gathering on John 1:6-8, and encouraged the newspaper's staff



About 100 church leader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joined Christianity Daily in celebration of its 12th anniversary.

to be united under their identity within Christ -- and assured them that when that identity is sure, all other needs will be taken care of.

First, '1.5,' and seco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from the greater Los Angeles area attended the event. Rev. Ezra Kang, the president of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Rev. Hee Min Park, former senior pastor of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Rev. Steve Chang, senior pastor of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Dr. Young Lee Hertig, executive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Asian American Christianity;

Hyepin Im, the president of 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 Rev. Ronnie Park, lead pastor of Good Stewards Church's English ministry; Rev. Sam Koh, the lead pastor of Los Angeles Christian Presbyterian Church's English ministry; Rev. Young Lee, the lead pastor of Berendo Street Baptist Church's English ministry; Rev. Woogie Kim, the lead pastor of Shalom Presbyterian Church's English ministry; Pastor David Park, college pastor of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nd Pastor James Kwak, the lead pastor of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range County's English ministry, were among those who attended.

Christianity Daily CEO John Lee asked those in the gathering to continue to support and pray for the newspaper, and said, "This isn't something that we [the staff] are doing on our own, but it is a newspaper that comes to fruition through the community."

"I'm excited to see God's power revealed through this newspaper to unite and revive Korean churches," he added, "and to bring about reconciliation between denominations, cultures, and generations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lca.org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쉽고 가볍고 재미있는 목회
있을지언정 그대로 되나리! 죽았더리!
동역자님의 목회는 **주안에서**
됩니다! 잘됩니다! 갈수록 더 잘됩니다!

예수님의 기도학교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자녀의 권세누림

낮은 자존감 짙은 **열등의식**으로 **시골 30명목회**가 꿈이었던 이영환목사의
쉽고, 가볍고, 재미있는 목회의 원동력인 핵심 말씀을 정리한
평신도 말씀훈련 교재 **「예수님의 기도학교」**
20개월만에 7,100여명의 목회자님들과 해외 26개국 선교사님들을
만족케한 검증된 세미나

주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님들!
지난 1년 8개월동안 한국교회 1천여교회 7,100여명의 목회자님들과 26개국의 선교사님들께서 "장자권" 전국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이 펼쳐 가실 목회현장이 **오직말씀, 오직기도, 쉽고가볍고 재미있는 행복복회,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풍성한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하여 아래와 같이 [기도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해는 "기도목회"가 해답입니다. "말씀과 기도" 목회만이 본질인데 2016년 새로운 목회를 기도로 준비하시는 이 때에 "기도편 목회자세미나"를 통하여 섬기시는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불처럼 뜨거워지고, 목회자의 영성을 순수하게 처음사랑으로 뜨겁게 유지시키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평안한 목회의 복을 누리고 금번 기도세미나 말씀훈련교재를 통해 "뜨거운 기도와 강력한 말씀의 위력"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강사 이영환 목사

- 한밭제일교회담임
-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미있게"라고 외치는 목회자
-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자녀의 권세누림」의 저자

기도편 목차

- 제 1과 기도, 반드시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따라하라!
- 제 2과 기도, 반드시 초대교회를 배우고 따라하라!
- 제 3과 기도, 할 수 있는 대로 자주, 오래하는 습관을 가지라!
- 제 4과 기도, 할 수 있는 대로 크게 부르짖으라!
- 제 5과 기도, 할 수 있는 대로 깊고 은밀하게 하라!
- 제 6과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라!
- 제 7과 기도,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하라!
- 제 8과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 제 9과 기도, 영적 전투의 최전방이다!
- 제 10과 기도, 영적 전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 제 11과 기도, 하늘나라에서 VIP로 취급됨을 주목하라!
- 제 12과 기도, 믿음의 절대 파워다!
- 제 13과 기도, 모든 문제의 완전 해답이다!
- 제 14과 기도, 인생 역전의 지름길이다!
- 제 15과 기도, 사랑의 대화임을 잊지 말라!
- 제 16과 기도, 사명 승리의 유일한 길이다!
- 제 17과 기도, 반드시 먼저 회개를 동반하라!
- 제 18과 기도,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가지라!
- 제 19과 기도, 야곱처럼 포기하지 말고 강청하라!
- 제 20과 기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강청하라!

「그리스도의 장자권과 하나님자녀의 권세누림」 2016 미주목회자 "기도편" 장자권 세미나 일정안내

일 시 : 2016년 2월 29일 (월) - 3월 2일 (수)
 * 구체적인 일정은 홈페이지에 일정표를 확인해주세요.
 강 사 : 이영환 목사 (한밭제일교회 담임)
 장 소 : UBM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등록비 : \$ 100.00
 * 주교재와 세미나 기간동안의 식사는 등록비에 포함되어 함께 제공됩니다.
 * 목회자 부부로 등록하실 경우, 등록비는 동일합니다. (목회자부부 2인 : \$ 100.00)

[등록방법] 인터넷 : UBMCHURCH.COM
 전 화 : 714-634-8360
 문 의 : 714-634-8360 / 714-331-1755
 714-501-1337
 이메일 : USA.SONSHIP@GMAIL.COM

주 최 : 미주 장자권 세미나본부
 협 찬 : PIXELL GRAPHICS / JP Toner & Ink Service